

## 선교의 일꾼들 “선교는 나의 사명”

세계복음선교연합회 26차 총회 개최돼... 총회장에 윤경호 목사

세계복음선교연합회(World Evangelical Mission Alliance)는 제 26차 총회를 LA에 소재한 월드 미션대학교에서 지난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개최했다.

“지역협의회를 통한 세계선교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총회를 통해 각 지역별 특성과 전체적인 목표 및 선교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총회에는 아시아(중국, 말레이시아), 아프리카(우간다, 남아공), 중동(터키), 유럽(독일, 이탈리아), 북미(미국), 중남미(멕시코, 코스타리카), 남미(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등 미주 전 지역을 포함한 세계 모든 곳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와 선교사 및 평신도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각 지역협의회를 통한 구체적인 사역과 협력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남미지역협의회를 모범으로 모든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전략을 수립했다.



세계복음선교연합회가 제26차 총회를 열고 세계선교의 효과적 방법에 관해 논의했다.

총회 이후 목회와 세계선교 협력을 위한 수련회를 개최해 최근 목회 및 선교 현황과 기도제목을 공유하기도 했다.

1년 동안 이 연합회를 위해 수고할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윤경호 목사(콜로라도 동양선교교회) ▲부총회장: 남중

성 목사(다우니 동양선교교회), 한도수 목사(브라질 새생명교회), 안정삼 장로(삼파울 동양선교교회), 홍석환 장로(한빛교회) ▲총무: 임성진 목사(월드미션대학교) ▲부총무: 이홍주 목사(미주지역협의회) ▲서기: 이은원 선교사(남아공) ▲부서기: 장광수 목사(뷰츠

브룩한인교회) ▲회계: 남윤희 목사(아시아선교교회) ▲부회계: 이재현 목사(미주지역협의회) ▲회록서기: 박동진 목사(사랑의공동체) ▲회록부서기: 김덕호 목사(미주지역협의회) ▲감사: 김영희 선교사(중국), 유정수 선교사(코스타리카) ▲빅터 박 기자

##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제3대 회장 이·취임식 감사예배



백지영 신임회장이 취임인사를 전하며 사업계획과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바야흐로 여성이 대세인 시대가 왔다.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남성 뒤에서 그림자처럼 머물러 있던 시대는 막을 내린 지 오래다. 정·재계 뿐 아니라 교계에 이더러 시대적 변화의 흐름

따라 여성목회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남성목회자 못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기세다.

지난 20일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가 제3대 회장 이·취임식 감사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출발의 신호탄을 울렸다.

신임회장에 선임된 백지영 목사는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중성스러운 심부름꾼이 되겠다”면서 “앞으로 지켜봐 달라”고 포부를 전했다.

백 목사는 재정적인 후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목회자들을 위한 기금마련 바자회를 비롯해 부흥성회 세미나, 장학금 지원사업, 천국

환송예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이날 예배 설교는 대전영광교회 영광기도원 김기연 원장이 ‘사명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미정부 한인커미셔너 협회 상임고문 김진형 장로가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어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변영의 목사와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김영대 목사가 각각 축사했고, 한인목사회 부회장 양석용 목사가 축도함으로 이날 순서를 마쳤다.

정하나 기자

## 남가주사랑의교회 새 담임은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노창수 목사

남가주 출신 1.5세 OMC 등에서 목회

와싱턴 당회 측 “혼란스럽다” 표시해

남가주사랑의교회의 3대 담임목사로 노창수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남가주사랑의교회 관계자는 노창수 목사가 청빙위원회(위원장 전달훈 장로)의 청빙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남가주사랑의교회는 노창수 목사가 청빙을 수락한 데 이어 교회 공동의회를 소집해 노 목사의 청빙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 목사는 1987년 와싱턴중앙장로교회에서 유스 목사로 목회의 첫 걸음을 내디뎠으며 동양선교교회와 선한침지기교회를 거쳐 2003년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노창수 목사는 지난 4월부터 6개월의 안식년을 보내고 있으며, 현재 서울에 머물고 있다.

한편 노 목사의 청빙 수락 소식을 들은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성도들은 다소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임시 당회를 열고 노 목사에게 남가주사랑의교회의 청빙 과정과 수락 결정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당회서기 정삼현 장로는 “노창수 목사 남가주에서 조만간 미국에 돌아오



노창수 목사

실 예정이며 오는 5월 29일 임시당회를 열 계획이다. 임시당회에서 그동안의 남가주사랑의교회 청빙 과정과 또한 노 목사의 결정을 듣게 될 것”이라며, “당회가 모든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성도님들에게 설명드릴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1.5세 노창수 목사는 UCLA 재학 중 목회자로 헌신해 바이올라대학교와 달라스신학교를 졸업했다.

오정현 목사가 1988년, 12명의 성도들과 시작한 남가주사랑의교회는 평신도 사역과 제자훈련으로 미주 한인교회를 대표하고 노 목사에게 남가주사랑의교회의 청빙 과정과 수락 결정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2010년 7월 2대 김승욱 목사가 분당 할렐루야 교회를 옮긴 이후 2년 동안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해왔다.

브라이언 김 기자

**TAX 문제 전문** 자신동결 및 은행구좌 차입해결, 일관세금사각, 세무감사대비 전 IRS 행정관, 감사관, 수사관 40년 경력의 세법전문사, CPAs

Clients	Case (Dec/11-Jan/12)	Results
Mr. Hwang, W	IRS \$62,317	합의 \$8,218
Mr. Lemmonier, H	FTB \$118,874	합의 \$1,700
Ms. Wilson, M	IRS \$450,190	합의 \$20,160
Mr. Kim, H (C. Corp)	BOE	Sales Tax Audit Dismissed
Mr. Rogers, A	IRS \$327,280	Levy lifted & \$500/mo
Mr. Farley, C	IRS \$3,112,350	합의 \$0

**TAX HELP TEAM (213) 248-0221**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귀국 자동차운송 업계최저 \$950**

무료 전화 877-580-2424 / 323-582-2424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영적대각성집회

**말씀 롬5:1-11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벤전2:9-10 새로운 신분을 경험하라**

전 세계적으로 닥쳐온 경제적 위기는 금권만능시대의 종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영적 빈곤상태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영적으로 재무장해야 합니다. 부디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영적회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일정 6월 7일(목) - 8일(금) 저녁 7시**  
**장소 수정교회 (Crystal Cathedral Church)**  
13280 Chapman Ave. Garden Grove, CA 92840

주최: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엄영민목사)  
후원: OC목사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문의: 714-337-0278 714-699-0210

손병렬 목사, 손인식 목사, 엄영민 목사, 한기홍 목사, 한중수 목사, 민경엽 목사

- 사회: 엄영민 목사, 민경엽 목사
- 기도: 손병렬 목사, 한기홍 목사
- 축도: 한중수 목사, 손인식 목사
- 찬양: 남가주사랑의교회 연합성가대, 베델한인교회 연합성가대, 은혜한인교회 연합성가대, 엘바인침례교회 연합성가대, OC제일장로교회 연합성가대
- 찬양: 남침례교회 연합성가대, 남가주동신교회 연합성가대, HYM찬양팀, 남가주사랑의교회 찬양팀, KCCC LA IMPACK 바디워십팀



4주년 맞이한 엘바인 사랑의방주교회 방익수 목사 인터뷰

# 세상 가수에서 성령에 붙잡힌 복음전도자

## “예배의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



이문세, 송창식 등과 함께 대중 가수로 20년간 가요계 활동을 하다 성령에 붙잡혀 복음전도자로 15년, 그리고 이젠 '사랑의방주교회'라는 이름의 신앙공동체를 만들어 이끌어 가고 있는 방익수 목사. 18일 오후 엘바인에 위치한 사랑의방주교회에서 그를 만났다. 시원 시원하면서도 다정다감했다. 신앙적 열정도 유전되는 것일까. 그는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전자를 받았다. 음악교사를 하다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된 어머니는 부산의 어느 달동네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족도 내팽개칠 만큼 열정을 쏟아 부었다. 아들의 입장에서 방 목사는 그런 어머니가 내내 못마땅했다. 그의 눈에 어머니는 한마디로 '목회에 미친 분'이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어

머니.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 하지 말라던 엄한 어머니 밑에서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라"는 교훈을 배웠다. 그 가르침이 3대를 이어가고 있다. "어머니는 자식인 우리보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게 우선이었어요. 정작 자신은 천막에 거적대기를 깔고 자면서도 말이죠." 방 목사는 4남매로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는 종종 "너는 주의 종이다"고 말씀하셨다. 뱃 속에 있을 때부터 나실인(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구별된 자)으로 드러났다는 말을 들었을 땐 반항심도 생겼다. "어머니는 왜, 내 허락도 없이 저를 바치셨어요?" 어린 그에게 '나실인', '사명자'란 개념이 이해될 리 만무했다.

어쩌면 가혹한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질 법도 했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그의 집안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동생의 죽음이다. 동생과 나란히 자고 일어나 보니, 어찌된 영문인지 방 안은 연탄 연기로 자욱했다. 옆에 누워 있던 동생은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질 않았다. 외출했다 돌아오신 어머니는 이내 혼절하셨다. 이 일로 인해 집안이 풍비박산 되고 가족들이 다 뿔뿔히 흩어지게 됐다. 동생의 죽음 이후 어머니의 인생은 그야말로 180도 변했다. 본인 이 목사가 되어 한다며 신학을 공부한 후 달동네 목회자를 자처한 것이다. 자식은 안중에도 없는 어머니는 어찌다 돈이 생겨도 가난한 이들에게 퍼주기 일쑤였다. 그

리면서 자식들에게 "너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라는 위로 아닌 말로 위로해 주셨다. 지리교사였던 아버지는 옆에서 그런 어머니를 보다 못해 끝내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면서 신앙에 대한 물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목회에 미친 어머니를 보면서 '절대로 난, 목사는 안 될거야'라고 수없이 되뇌곤 했다. 이란 세월을 말이다. 교육자 집안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고 자랐기에 세상음악을 하면서도 '의리 빼면 시체'라고 할 만큼 정직하게 살고자 노력했다. 순수한 영혼의 울림을 음악에 담고자 열정을 쏟았다. 그리고 음악에 비취 자신뿐 아니라 바깥 세계를 봐 왔다. "신기하죠. 그 때도 예수님은 늘

순수한 영혼의 울림을 음악에 담고자 열정을 쏟았다. 그리고 음악에 비취 자신뿐 아니라 바깥 세계를 봐 왔다. "신기하죠. 그 때도 예수님은 늘

### 20년간 가수생활 후 박종호 따라 간 집회에서 주님 만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찬양 발견한 한국교회 예배인도자 1호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母傳子傳

**TOP MEDIA**  
교회설교 CD제작  
성가대 및 찬양대 소규모 앨범 제작  
교회에 필요한 모든 미디어용품 판매  
**TEL. 323-265-0244 FAX. 323-265-0250**  
3170 E. 11th St., Los Angeles, CA 90023  
www.topmediausa.com topmediausa@yahoo.com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 훈장받은 1등 명품

### 김영귀 알카리 이온수기

**목회자 할인 프로그램**  
**무이자 12개월 할부 프로그램**

**산업훈장에 빛나는 김영귀 이온수기는**

- 1 특별히 좋은 맛** 특허권을 가진 두개의 초정밀 8단계 정수필터
- 2 믿을 수 있는 제품** 자체 연구소와 공장을 지닌 30년 역사의 전문회사
- 3 거품없는 가격** 좋은 제품, 좋은 가격 공짜선물, 끼워팔기 없습니다.

**물의 과학화, 의료화 - 김영귀가 앞서갑니다.**  
알카리 4단계 / 산성 4단계 / 정수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A/S, 필터교환이 염려되십니까**  
30년 역사의 자체브랜드, 김영귀이온수기라면 안심할수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고 소비자가 추천하는 명품 알카리 이온수기  
한국과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이제 1등 명품 김영귀알카리 이온수기입니다

독일 스위스 러시아 국제 발명 전시회에서 7회연속 금상 수상  
이정숙비서가 신장헌 임팩트대사  
2011년 여성소비가가 선정된 품질만족대상

2011 소비자권익이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제 마음 한켠에 있었어요. 마치 신발 속으로 굴러 들어와 발가락에 박혀있는 돌맹이 같은 존재라고나 할까요.”

음악이 좋아 시작한 가수생활이었다. 하지만 그리 평탄하진 않았다. 오히려 쫓막 많았다는 표현이 맞을 게다. 가요계 활동을 하면서 낸 음반이 안 팔려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이다. 음반 내는데 돈을 빌려준 사장들을 피해 도망다니는 것도 한 두 번이지 무거운 빛의 무게에 눌러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듯 했다. 남한테 신세 지고는 못 사는 스타일인지라 정말이지 자살 직전까지 갔을 정도다.

그러다 90년대 어느 날, 사촌동생인 박종호를 따라간 청주의 어느 찬양집회였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물음을 안고 있었던 그는, 그곳에서 예수를 만났

말고 사람이 되라”는 송 목사의 가르침이 늘 그의 뇌리에 꽂혀있다.

그렇게 15년간 한국 기독교TV와 극동방송의 찬양예배 프로그램 인도자로 사역해 왔다. ‘영으로만’ ‘내 영혼아 잠잠하라’ 등의 찬양과 찬양위임을 진행하며 복음전도자로, 찬양사역자로 전세계 3천여 집회를 인도하면서 ‘말씀제일주의’가 그의 신조가 됐다. 집회로 마음을 뒤는 이른바 ‘정화 작업’은 하지만, 남아있는 옛 습관은 훈련을 통해서만 청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한 신앙훈련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현재 그가 시무하고 있는 사랑의방주교회, 줄여서 ‘사방교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올해로 4년째에 접어들었다. 말씀으로 회복되는 예배 공동체, 영혼을 구원하는

지만 고집스러우리만치 육을 치면서 죄적인 습관과의 싸움을 해나간다. 기도도 적당적당히 하는 게 아니다. 하루에 5-6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것도 밤 12시부터.

교육도 마찬가지다. 빼대있는 교육자 집안에서 자란 탓인지 선교보다도 교육을 최우선으로 둔다. “말하자면 ‘싸가지 훈련’입니다. 선교도 배운 사람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도 안 싸우더라구요.”

방 목사 특유의 까칠한 성격으로 제대로 된 예배와 기도와 교육을 고집하니 웬만한 성도라면 용광로 불같은 훈련을 견디기 힘들 법도 하다. 그래서일까, 이 교회 성도들에게선 은은하면서도 잔잔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진다. 불같은 연단을 거친 알맹이들만 남아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면 찬양까.

성도수 50명. 작다면 작은 개척교회지만, 알이 짙 찬 알맹이들로 구성돼 있기에 교회 전체를 감도는 성령의 기운이 범상치 않다. 초대교회를 지향하는 사방교회는 7개 지교회 개척을 목표로 두고 있다. 오는 10월엔 LA 개척을 시작한다. “제대로 된 훈련을 거쳐 남은 자들이 500명 되면...”이라고 여운을 남기는 방 목사. 앞으로의 그의 행보가 기대된다.

■방익수 목사는?

방익수 목사는 타고난 음악성과 교육으로 얻은 음악적 재질을 바탕으로 세상 음악 속에서 살다 1996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아래 복음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철저한 제자훈련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그는, 헌신한 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방방곡곡을 비롯해 유럽과 호주, 동남아시아, 미주를 순회하며 찬양과 말씀을 통해 복음전도자로 사역해 오고 있다.

전세계를 다니며 ‘부흥 위심’을 통해 예배회복을 외치던 그는 복음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의 충만함과 풍성하고 영성 넘치는 찬양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변화된 사람들이 거룩하게 자신을 지켜 세상을 다시 변화시키는 현장, 바로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의 현장을 체험해 왔다.



2003년 하나님의 인도로 미국으로 이민한 방 목사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사역을 펼쳐 나가기 위해 ‘디클레어 미션(Declare Mission)’을 설립했고, 사역의 중심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겼다. 미주에서도 집회 사역을 계속하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의 권면의 기도와 교회를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정교회 모임을 인도해 오던 그는, 2009년 4월 엘바인에서 사랑의방주교회를 개척해 시무하고 있다.

프로필

- 찬양위십팀 화평케하는자 사역
-엘바인 사랑의방주교회 담임
-굿패밀리 미니스트리 대표
-미주 CTS TV (방익수의 찬양 여행), 극동방송 (방익수의 Amazing Grace), 미주복음방송 (방익수의 Amazing Grace) 진행

교회소개

사랑의방주교회(The Ark of Love Community Church)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

로 정복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일예배는 주일 오후 12시 30분, 중·고·청년부 예배가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있다. 이밖에 청년부 성경공부를 비롯해 화요 성경공부, 금요일야예배 프로그램이 있으며,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 7시 Heavens Worship이 있다. 주소) 13955 Yale Ave., Irvine, CA 92620 전화) 949-654-0191

정하나 기자

타고난 음악적 재능으로 복음전파
인본주의 배경 철저한 신본주의
말씀듣고 말씀대로 사는 제자훈련

다.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세상문화에 익숙했던 그가 변할 수 있었던 것에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하루에 8시간 기도하는 아내의 내조도 한몫 했다.

성령 체험 후 이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6개월의 골방 기도 끝에 과감히 가수생활을 청산하고 복음전도자로 대중 앞에 다시 서기로 결단했다. 첫 집회는 싱가폴에서였다. 로마서를 들고 말씀을 전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여기저기서 쓰러지고 눈물로 회심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방 목사에게 중요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있다. 당시 “무엇보다 말씀이 우선이다. 그리고 말씀 사역하려면 기도해야 한다”며 방 목사를 붙잡아 주던 영적 아버지 같은 존재, 바로 송신호 목사(한국 제자훈련원 원장)다. 한국에서 제자훈련을 처음 도입해 시작한 송 목사로부터 2년간 말씀대로 사는 법을 훈련받았다. “목사가 되지

생명 공동체,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가정 공동체, 사랑과 헌신의 섬김 공동체, 찬양의 기쁨의 문화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는 교회다.

방 목사는 “영성과 지성과 감성이 함께 하는 깊은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열매는 맺어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곧 신본주의를 우선시하는 것 또한 두드러진 특징이다. “나에서 시작하는 건 인본입니다. 신본주의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며,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본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24시간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가자 몸부림치는 담임목사의 목회 철학을 따라 성도들도 신본주의를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방 목사의 “모든 교회 구성원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이며 “그 가운데 처음이 예배고 삶은 그 다음”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훈련을 하는 것이 쉽진 않

Advertisement for insurance services. Text: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Insurance premiums significantly reduced!). Includes contact info: 213.761.9990,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Advertisement for eye treatment. Text: 암 치료의 희소식 (Rare news of eye treatment). “대통령 각하 암을 정복했습니다.” 외 다수의 저자 스페인에서 수술않고 한방으로만 암치료를 유명한 한동규 박사님의 미국 연락처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Contact: T. 213-235-5800, 213-252-9036.

Advertisement for Saevit Acupuncture Clinic. Text: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Contact: 323-735-6365,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Large advertisement for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CUTS). Title: 제24회 학위수여식 (24th Commencement). Text: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Vision 153 World Mission을 위해 세워진 대학교이며, 최종 목표는 Vision 153을 완성하여 기독교 UN을 설립하는데 있습니다. Date: 2012년 5월 25일(금) 오후 5시. Location: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ncludes a map of the location.



# 한부모 가족축제, 서로 위로 축복하는 자리

### 홍수같은 웃음의 물결 속 서로의 아픔 보듬는 한부모 가정들

“어느 날, 퇴근해 돌아온 남편은 나를 안혀 놓고, 헤어지자고 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나와 마주치기만 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든지 다 두고 나가든지 마음대로 하라며 언성을 높이곤 했다. 나는 그동안 떠나 있던 하나님을 떠올리고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시작됐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인간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제16회 한부모와 자녀수기 공모전 선정작 중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유난히 손을 맞잡은 가족들이 눈에 들어오는 때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맘때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석하는 연합예배나 피크닉, 경로잔치 같은 가족들을 위한 이벤트가 쏟아진다. 그러나 홍수같은 웃음의 물결 속에서 남몰래 휘청이는 이들이 있다.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다. 지난 19일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아픔을 서로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행사 ‘한부모 가족축제’가 세리토스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세리토스장로교회 가정지역국이 주최하고 가정사업 상담소(FMC)와 탈북신학교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 자칫 소외되기 쉬운 한부모 가정들을 위한 섬김과 위로의 축제가 마련됐다.

정사업팀이 주관했다. 행사의 최대 이벤트로 자리잡은 수기공모전이 올해도 마련됐다. 싱글 가정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목적으로 매년 이맘때 개최돼 온 이 행사는 97년 탈북신학대학원 씨니 송 교수가 오렌지카운티지역 교회에서 시작한 이래 남가주 내 싱글맘·싱글대디들을 위한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행사는 식사와 푸짐한 상품은 물론 세리토스장로교회 부목사 최준우 목사와 아주사퍼시픽대학 변명혜 교수의

강연, 한 부모 가족들이 아픔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소그룹 교제 시간, 웃음치료사 정건오 씨의 특별 프로그램 등으로 짜여졌다. 이날 ‘홀부모의 정체성과 자아성, 나는 누구인가’란 주제로 강연한 변명혜 교수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바람직한 성경적 자아상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상처를 극복해 나갈 것”을 권면했다. 정하나 기자

## 은혜한인교회 창립 30주년 감사예배

이전 영광보다 큰 앞으로의 30년 되길



은혜한인교회를 섬기고 이끄는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이 임직식 후 기념촬영했다.

오렌지카운티에서 30년간 지역사회를 섬기고 변화시켜 온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가 ‘창립 30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을 치루었다. 281명의 제직을 임명한 이번 임직식에는 특별히 시 관계자가 참석해 주정부와 시에서 주는 감사패를 교회 측에 전달했다. 한기홍 목사는 학개 2장 9절을 본문으로 ‘나중 영광이 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하며 “본문처럼 임직자들과 여러분들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커지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나중 영광이 큰 신앙을 할 수 있나? 예수로 충만한 삶

을 살아야 하고 주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난 30년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니 감사하다”며 “불신자로 유학 중이던 나도 이곳에서 변화되어 목사가 되었다”고 창립 30주년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수로 마무리 됐다. 이번 임직식에서는 증경장로 10명, 명예장로 5명, 협동장로 4명, 피택장로 6명, 안수집사 14명, 협동안수집사 6명, 권사 53명, 협동권사 8명, 서리집사 175명이 직분을 받았다. 빅터 박 기자

## 당신은 사모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 오렌지카운티교협 사모블레싱나잇 올해도 개최

때로는 목회자가 하는 일도 해야 하고 때로는 집사가 하는 일도 해야 한다. 그러나 목회자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다. 교회에 교사가 필요하면 교사가 되어야 하고,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목회자의 비서 역할도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나서면 안된다.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정확히 아는 노련함이 필요하다. 너무 안해도 욕 먹고 너무 일해도 욕 먹기 십상이다. 바로 이민교회의 사모다.

아프고 쓰린 마음으로 이민목회에 동역하는 사모를 위한 “사모 블레싱 나잇”이 올해도 5월 31일 저녁 6시 30분 하워드존슨 호텔(222 W. Houston Ave. Fullerton, CA 92832)에서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엄영민 목사) 주최로 열린다. 오렌지카운티교협은 지난해에 처음 이 행사를 개최하며 사모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엄영민 목사는 “이 행사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항상 목회자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사모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다. 목자들이 직접 사모들을 정성을 다해 섬겨드리고 조금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원한다. 또한 섬기는 교회에서 제각기 수고하느라 서로 만날 기회가 적었던 여러 사모들이 함께 대화하며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행사는 예배와 만찬, 레크레이션과 경품 증정 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문의) 714-323-9890(윤덕곤 목사) 714-417-8004(웬디 유 사모) 한주연 기자



행사를 준비 중인 송규식 목사(OC교협 부회장), 윤덕곤 목사(부회장), 웬디 유 사모(여성분과위원장)



오렌지카운티교협은 지난해에 이 행사를 시작해 사모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

## 당신의 클릭이 탈북고아 살린다

### 한미연합회, 탈북고아 위한 입양 법안 통과 위해 도움 요청



기자회견에 나온 그레이스 유 사무국장, 강언덕, Ray Chang 씨

지난 4월 8일 국적 없는 난민 지위를 가진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탈북고아 입양 법안이 미 외무부에서 언급됐다. 탈북한 어린이들은 그들과 함께 탈북한 부모가 사망하거나 헤어지게 되는 등의 이유로 혼자 남는 경우가 많다. 현재 시민단체나 기관을 통해 탈북고아 입양을 원하는 미국인이 늘고 있지만, 제도적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 법안은 미국인들이 제3국을 떠도는 탈북고아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해서 어린이들이 더 이상 어려움 없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지금까지 31명의 의원이 공동 지지하고 있으며, 법안의 통

과를 위해서는 더 많은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21일 오전에 이와 관련, 한미연합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그레이스 유 사무국장은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또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여러분들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며 “www.thinkchildren.org로 들어가서 법안 통과를 위한 서명 또는 재정적 후원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 이 일은 단순한 서명을 넘어 의원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고 이 법안이 상정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의 클릭 한번이 이 시간에 고통받고 있는 탈북고아들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토마스 맹 기자

# 월드미션대학교 제21회 학위수여식 및 총장 이·취임식



이임: 임동선 총장 Rev. Dr. Dong Sun Lim



취임: 송정명 총장 Rev. Dr. John M. Song

월드미션대학교의 이사진, 교수진 및 졸업생 일동은 제 21회 학위수여식 및 총장 이·취임식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 일시: 2012년 6월 2일(토)오후 1시
- 장소: 월드미션대학교 예배당
- 문의: 213-388-1000





# 겸손과 순종의 신앙인격

### 베드로전서 5:1-6

장재효  
서울 성은교회 목사



베드로전서 5:1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2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3 맑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4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5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 그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본문에서 베드로는 장로 중의 하나라고 설명하면서 모든 다른 장로들에게도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 장로들이 절대로 교만한거나 어떤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려 하지 말고 겸손히 섬김의 자세로 양 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때 중에서도 젊은 신앙인들로 자신이 하늘나라 가기를 진정 소원한다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인격을 통해 제복과 같이 겸손과 순종의 신앙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신앙인격이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 기도에 쓰실만하다고 인정받을 때 그를 높이 들어 쓰시게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닐지라도 교만하며 언행으로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당히 기피하고픈 대상으로 "저 사람은 교회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여겨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또 그 인생은 버려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때에 후회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 1. 교회 지도자의 마음가짐 고난의 증인

본문 속의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 즉 목회자를 일컫습니다. 1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종된 사명자는 영광의 증인이 아니라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에 당하신 그 모진 행패와 수난과 고난들은 제자된 신분으로 지내오면서 잘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을 보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실 때, 예수님의 고난을 먼저 증거하는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온갖 수모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고난의 과정을 생생하게 증거하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때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듣는 사람들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체험도 주시고 감동, 감화케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증인의 삶을 성실히 산 사람들은 훗날 부활하여 영광 중에 승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

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에도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 2. 교회 지도자의 마음가짐 청지기의 자세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맡겨진 양 떼는 내 양 떼가 아니고 하나님의 양 떼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치되 부득이함으로 마치 못해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자발적인 의지와 사명을 앞세워서 하라는 것입니다.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것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팔거나 또 무슨 직분이나 사역을 빙자하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 우리나라에 부흥사 전성시대가 있었습니까. 이들 중 몇몇은 모인 사람들의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은혜 전담의 사명자보다 그들의 주머니 속 물질을 얻기 위하여 성경의 온갖 내용들을 악용하여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금에 와선 그들은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3절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양 떼들의 신앙을 지도할 때 입술로만 교리적인 것, 사명적인 것, 또 의지적인 것을 훈련, 교육시키려 하지 말고 목자 자신의 생활로 본이 되는, 보여주는 설교에 힘써서 양 떼로 그 목자의 신앙생활을 보고 받아들이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목자장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 교회 지도자의 마음가짐 온유와 겸손

5-6절에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과 순종을 힘써 훈련하여 때가 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 들어 크고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독일에 공작, 백작, 자작이 있고 후작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으뜸으로는 공작이었습니다. 왕의 근친 중에 로드리스게라는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왕의 직계후손이 없어 조카들 중에서 왕위를 계승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로드리스게는 분명 자신이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겸손과 순종으로 백성을 섬기기 위한 교육도, 훈련도 받지 아니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왕의 자리에 마치 자신이 오른 것처럼 교만하고 거만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고 상당히 위압적으로 건방지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술로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포악하고 못된 짓을 하곤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왕의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생각하고 눈여겨 보

고 있었지만 전혀 왕의 재물이 아님을 알고 왕위 후보계열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만약 그가 왕의 자질을 배우고 계율을 배우며 열심과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백성을 섬기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면 틀림없이 왕위를 계승했을 것인데 자신의 잘못된 처신으로 말미암아 왕위 후보계열에서 배제된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울분을 터뜨리며 점점 패인이 되어 갔습니다. 그 당시 독일은 기독교 국가였기에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가야했습니다. 그는 교회에 술에 취해 가기도 하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사냥을 갔다가 눈이 많이 내려 길을 잃고 산속을 헤매다 그만 낭떠러지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한없이 미끄러져 내려가다 위압감을 느낄 정도의 골짜기에 이르러 비로서 그곳에서 인간 자신의 나약함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국의 제왕이 될 꿈에 부풀었던 그가 평생 처음으로 대자연의 위대함과 웅장함에 스스로 위압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말 보잘 것 없는 존재이며 허약하기 이를 데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안감과 두려움에 스스로 막막함에 빠져들었다. 그때 그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나 아닌 나로 잘못 행세하고 광패와 교만을 일삼았습니다"라고 기도하며 조급씩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마침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함께 있던 사냥개가 주인을 종소리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개를 따라가 보니 아주 조그마한 기도원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수도원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목사님이 은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평생을 하늘나라 가기 까지 자기 믿음을 알찬 결실로 채워 가기 위해 애써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개와 함께 어떤 사람이 다가오자 쫓아 나와서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니 왕자라고도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길을 잃어버려 이곳 종소리를 듣고 찾아왔다고만 말합니다. 목사님이 이곳이 너무 누추해서 있을만하냐고 해도 자기 같은 죄인이 장소를 탓할 이유가 없다고 답할 정도로 겸손해졌습니다. 그리

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한때 통곡이 터져나와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아 왔습니다. 오늘의 형편은 제 탓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하며 밤새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먹을 것을 만들어 "좀 드시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저는 그것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받아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저는 계속 낮아져야 합니다. 제 자신을 낮추고 더 낮추어 더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하며 사흘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 후 목사님으로부터 일주일 동안 가르침을 받으면서 더욱 성숙한 신앙인격을 갖추어 갔습니다. 그동안 왕궁에서는 사라진 사람으로 인해 많은 격정 속에 있었는데 그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17과 같이 이전의 로드리스게는 지나갔고 보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인격으로 겸손하며 순종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습니다. 그런 후에 그 사람은 아주 조용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자기가 가진 소유를 정리하여 빈민층에 나눠주며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왕위에 올랐던 자가 병이 나서 죽기 전에 후임자를 세우는데 원로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로드리스게를 뽑았고 그는 원하지 않았지만 원로원에서 모셔다가 왕위에 오르게 했습니다.

이같은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데, 그런즉 겸손과 순종의 지혜를 배워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성령에 이끌리어 쓰임받고 하나님 더 잘 섬기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요긴하게, 또 높이 불러들여 쓰실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신앙인격을 온전히 갖추도록 힘써야 합니다. 전도를 할 때도 자신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오직 예수님만 보여지고 느껴지며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 쓰시리라" (벧전5:6)는 말씀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CTS TV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 30분	
KTN.DIGITAL TV	미서부 주일 새벽 5시 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후 2시 30분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11시 50분		미국 기독교일보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담임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중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서번역선교회 총재, 선교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서번역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 Solution for Tomorrow



www.laservisionworld.com

**무료 음향 영상 조명 컨설팅 및 System Check-up**

문의 323.730.5050

**Blackmagic Cinema Camera**

Featuring a wide 13 stops dynamic range, 2.5K resolution, EF & ZE lens compatibility, SSD recorder, RAW, ProRes and DNxHDI



**\$2,995 Body +Lens(Optional)**

**ATEM Television Studio**

**\$995**



**SONY NEX-VG20H**

**\$2,199**



**Blackmagicdesign**

**vimeo USTREAM**

저렴한 비용에 고품질 HD급 예배 중계 시스템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ATEM Television Studio 하나로 고품질 영상 녹화뿐만 아니라 실시간 인터넷 중계까지 All in one System 을 구축해 드립니다.

Laservision World / Laservision Structure & Engineering Inc. / wwori.com / AVLgear.com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Tel: 323-730-5050 Fax: 323-383-0257 contact@laservisionworld.com



# “영원한 신부는 총명한 거룩 안에 있다”

### PFJM 주최 <거룩한 열정 컨퍼런스> 열려

예수님을 향한 열정 미니스트리(대표 데이빗 리 목사, PFJM)가 주최하는 ‘거룩한 열정 컨퍼런스(Holy Passion Conference)’가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오전 10시와 오후 7시 하루 두 번, 총 8회에 걸쳐 미주비전교회(담임 이서 목사)에서 열렸다.

16일 오전 데이빗 리 목사는 ‘하와, 하나님과 부끄러움 없는 친밀감을 갖도록 창조된 신부의 이미지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설명하며, “우리는 수직심을 느낄 때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가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이다. 수직심이 사라질 때 비로써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

다”고 했다.

리 목사는 ‘한 영혼의 존귀함과 가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는 헨리 스쿠칼의 메시지를 인용하며,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과 가치는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동반자로 여기시는 예수님의 갈망에 기반을 둔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키기를 원하신다”며 “하나님은 열정으로 가득 차서 모든 것을 태우고 없앨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자기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심판도 사랑을 기초로 한다”고 했다.

이서 리 목사는 하나님의 성품

을 담은 인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구원받은 아름다운 존재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며, 그분의 백성들을 크게 즐거워 하신다”라며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성품과 시각은 사랑과 후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위한 유업을 이을 자로 선택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보실 때 구원을 통한 궁극적인 모습으로 바라 보신다”고 말하며, “우리가 영원한 신부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총명한 거룩 안에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마무리 지었다.



데이빗 리 목사가 거룩한 열정 컨퍼런스에서 강의하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 하나로커뮤니티 새 담임 양성필 목사

### 비전으로 부흥하는 교회 기대돼

북미주개척장로교회(CRC) 소속인 하나로커뮤니티교회는 지난 5월 6일 전교인 공동의회를 열고 청빙위원회가 추천한 양성필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했다.

이 교회는 지난 2월 강일용 목사 사임 이후 전교인이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갖는 등 담임목사 청빙을 위하여 힘써 왔다.

양성필 목사는 하나로커뮤니티교회의 제 2대 담임목사로 6월 3일부터 시무할 예정이다. 그는 한국에서 장로회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평촌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한 후 2008년 현재까지 배렐한인교회(순인



양성필 목사

식 목사)에서 부목사로 사역해 왔다.

교회 측은 “하나님의 은혜로 담임목사 청빙절차가 아름답게 마무리되어 감사하고 기쁘다”며 “젊은 담임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의: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626-912-6600 빅터 박 기자

## 재소자신학대학을 위해

### 찬양하는 일꾼들 라이브콘서트 개최

### 재소자들에 의한, 재소자들의 신학대학을 꿈꾸며



재소자 출신 음악인들이 현재 재소자들의 신학 교육을 돕기 위한 음악회를 열었다.

지난 12년간 재소자신학대학을 통해 많은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온 뉴호프미션(대표 조성도 목사) 주최로 신학대학을 후원하는 찬양콘서트가 지난 18일 오후 7시 주님세운교회(박성규 목사), 19일 오후 6시 LA한인침례교회(박성근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는 재소자 출신 찬양팀인 ‘찬양하는 일꾼들’이 주축이 되고, 주님세운교회 찬양팀, LA한인침례교회 찬양팀, 테너 최왕성, 찬양사역자 이민에(갈보리믿음교회 성가지휘), 찬양사역자 Eva Mull 선교사, 피아니스트 David Hollowell(에브라함교회 신학교 담임), LA 드림색소폰앙상블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박성근 목사는 마태복음 26:40-46을 본문으로 ‘작은 자가 주님이다’라는 말씀을 증거했다. 설교 후에는 David Hollowell 목사가 한인 커뮤니티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나에게 ‘교도소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셨다. 지난 5년만에 730여명의 재소자들에게 세례를 주 새로운 인

생을 선물한 것에 감사한다. 이것은 모두 한인교회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간증했다.

뉴호프미션 대표 조성도 목사는 “2002년도에 교도소에서 라티노 형제의 무엇인가 갈망하는 눈빛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겠다고 다짐했다”며, “지금까지 80여명이 신학대를 졸업했다. 이들 중에는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는 재소자들이 많다. 앞으로 재소자들을 지도자로 세워 그들을 통해 재소자신학대학을 운영하고, 선교하게 하는 것이 꿈이다”고 전했다.

뉴호프미션은 현재 43곳 주립교도소에서 300여명의 재소자 신학생들에게 신학교재를 제공하고 있다. 치노주립교도소에 하베스트비디오칼리지를 설립해 40여명의 장교 재소자 신학생들에게 비디오를 통해 신학대 4년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과정을 마친 재소자는 하베스트바이블유니버시티에서 수여하는 학위증을 받게 된다.

후원 문의) 213-700-7535 빅터 박 기자

## 남가주헬로쉽교회

### 창립 18주년 감사 임직예배 성료



남가주헬로쉽교회가 창립 18주년을 맞이해 7명의 임직자를 세웠다. 뒷줄 가장 오른쪽이 박해성 담임목사.

창립 이후 매주 주일 홈리스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음식을 나누며 지역사회를 섬겨 온 포모나 소재 남가주헬로쉽교회(박해성 목사)가 지난 5월 20일 ‘창립 18주년 감사 임직예배’를 통해 7명의 일꾼들을 임명했다.

이번에 임명된 임직자는 시무장로에 신현백, 시무권사에 신정숙, 명예안수집사에 오석균, 전영준, 명예권사에 설선순, 오영자, 전추자이다. C&MA(기독교선교연합) 한인총회 원로목사회 부회장이 나윤태 목사는 디모데후서 2:20-23을 본문으로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했다.

나 목사는 “어떤 그릇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나? 그릇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그릇을 깨끗이 하느냐가 중요하다. 또한 주인이 쓰시길 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을 비워야 한다”고 자기 비움의 신앙을 선포했다.

그는 “오늘 세워진 임직자들을 통해 남가주헬로쉽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길 바란다”며 설교를 마쳤다.

인랜드교역자협의회 총무인 류수열 목사(한울림교회)는 “교회를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임직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C&MA 서부지역회의 총무인 한순규 목사(샌디에고 열방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신뢰하고 살았기에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던 것처럼 오늘 임직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고 승리하는 직분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

##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 되길”

### 새생명비전교회 43명 임직식 거행



새생명비전교회와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 등 교회의 일꾼 43명을 세우는 임직감사예배를 드렸다.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는 지난 20일 교회가 주일 예배 장소로 빌려쓰고 있는 LA 고등학교 교원관에서 장로·권사·안수집사 임직식을 갖고 43명의 제직을 배출했다.

이날 임직식에서는 신임장로 1명을 비롯해 협동장로 4명, 명예장로 3명, 권사 16명, 협동권사 15명, 안수집사 2명, 협동안수집사 2명이 새롭게 임직받았다.

허은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부노회장 이상용 장로의 기도와 풀러신학교 이광길 교수의 설교로 진행됐다.

이 교수는 ‘진정한 제자’(마

7:21-29)라는 제목으로 ‘인생의 마지막 정점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임직자들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후 임직식에서는 강준민 목사가 회중을 향해 임직자를 소개하고 임직자들의 서약을 받은 후 안수를 집행했다. 안수위원으로 강 목사를 비롯해 6명의 목사와 4명의 장로가 참여했다.

이어 축사는 GEDA선교회 본부장 유의찬 목사가, 권면은 남가주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변영익 목사가 각각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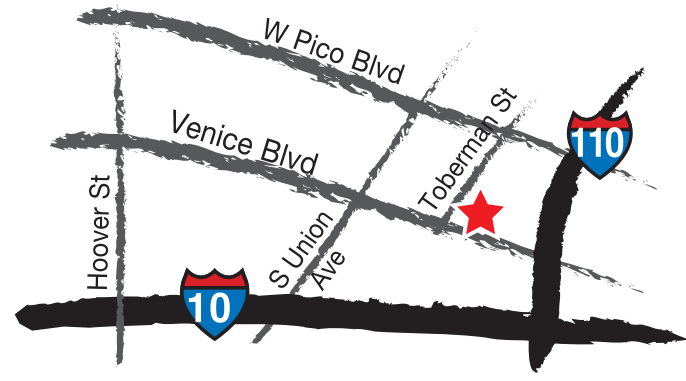
정하나 기자

축사는 서부지역회 부회장이 이창남 목사(주님의손길교회)가 맡았다.

빅터 박 기자

# 축 창립 5주년 기념 및 임직예배

- 장로 윤석관, 이현기
- 안수집사 김장률, 정광훈, 최종민, 장세훈, 이창원, 오영동, 조원영
- 권사 최복희



장소: 갈릴리신학대학 예배실  
 일시: 2012년 5월 26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주소: 1000 Venice Bl, Los Angeles, CA 90015

하나님의 긍지, 한국인의 긍지, LA의 긍지  
**나성소망교회 LA HOPE CHURCH**  
 교육센터: 4055 Wilshire Blvd #308, Los Angeles, CA 90010  
 소망기도원: 3720 N. Mountain Springs Rd. Pinon Hills, CA 92372

담임 김재울 목사  
 문의전화: 213-550-7377  
 4063 Ingraham St Los Angeles, CA 90005 Wilshire Park Elementary School (주일예배장소)월셔파크초등학교강당



# 은혜의 100년을 동력 삼아

## 예장합동 설립 100주년 기념 선교대회 및 행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가 교단 설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은혜의 100년, 빛으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해외선교대회와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런 일련의 행사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행사는 역시 29일부터 31일까지 나성열린문교회(박헌성 목사)에서 열리는 선교대회이며 이 대회는 예배와 각종 세미나, 토론회를 통해 지난 100년을 돌아보고 향후 10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지만 특별히 이 해외선교대회는 미주와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인들이 모인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총회 해외선교부인 GMS 소속 선교사는 물론이고 총신대학교 동문들까지 모두 참여한다. 따라서 총신대 출신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 목회자들도 이 행사에 대거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신대 소속 목회자들이 시무하는 교회의 평신도들까지 참여하게 되며 목회자만이 아니라 평신도들까지 총회의 100년을 함께 기념하고 비전을 나누게 된다.

대회장 박헌성 목사는 “이 대회는 모교단의 위상을 높일 뿐 아니라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한국교회의 국제적 역할과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대회를 통해 모교단 출신의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 선교사가 협력해 선교를 위한 구체적 진단을 내리고 각오를 다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예장합동 총회설립 100주년 총준비위원장 고영기 목사는 “앞으로 치러질 모든 행사는 소외된 이웃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 목사는 “합동은 은혜의 100년을 빛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1884년 알렌 선교사,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 복음이 전해진 후, 1912년 9월 1일 제1회 총회를 통해 조직된 이 교단은 현재 1만2천교회, 293만여 성도로 성장하며 한국 최대의 개신교단으로 자리잡았다.

이 행사는 120명 선착순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등록비는 50불이다. 문의) cafe.daum.net/mission-100, sshan32@gmail.com, 한성수 목사 714-504-4257 한주연 기자

### 이렇게 대화하세요!

말이 안 통하는 세상이다. 남녀 간에, 목회자와 평신도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되지 않아 갈등과 어려움이 발생한다.

주성선교교회에서는 대화법을 통한 행복한 가정 세우기 세미나를 8주 과정으로 개최한다. 왜 대화가 안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현실적 접근법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대화를 막는 14가지 걸림돌에 관해서도 다룬다. 그리고 남의 말을 올바르게 경청하며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훈련을 제공하며 교정을 교육할 계획이다.

강사는 주성선교교회 담임인 손태정 목사이며 오픈 강의를 5월 26일 오전 9시 30분과 오후 12시, 28일 저녁 7시에 3번 열린다. 과거 이 세미나에 참여한 바 있는 한 목회자는 “나는 누구보다 대화를 잘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 대화법을 배운 후 큰 충격을 받았다. 세 자녀들 둔 아버지로서 말의 변화가 절실히 올랐다고 밝혔다.”

주소 및 문의) 18021 Norwalk Bl. #201 Artesia CA90701, 562-896-0691 한주연 기자

# 재외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개최돼

## 신임총회장 송환규 목사, 부총회장 정진기 목사 선출



재외한인예수교장로회가 총회를 열고 신임 임원을 선출하는 한편, 각종 사업을 논의했다.

제34회 재외한인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가 ‘믿고 아는 일에 하나되는 총회’라는 주제로 21일 하늘빛선교교회(심형섭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장 송환규 목사, 부총회장 정진기 목사, 서기 김정도 목사, 부서기 강용순 목사, 회록 서기 조성 목사, 부회록서기 정진구 목사, 회계 임순종 목사, 부회계 류경석 목사, 총무 서보천 목사가 선출됐다.

총회장 송환규 목사는 “음식은 오래되면 부패하거나 발효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썩어 썩어 가는 것이 아니라, 발효되어 유익을 주는 총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 사절단 대표로 참석한 남태섭 목사(총신대학교 운영이사장)는 “올해는 교단 설립 100주년이다. 한 세기를 접고, 한 세기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한국총회와 재외총회가 형제교단으로 함께 전진하는 기쁨이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축하인사를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발전적 개혁의 일환으로 상비부를 개편해 정치행정부, 고시신학부, 전도선교부, 목회교육부 실용화했고, 이민교회의 현실에 맞게 교단 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토마스 맹 기자

# 복음대학교 2012년도 학위수여식 및 졸업식 거행돼

##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회자 되길”

재미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직영 복음대학교(Evangelia University, 총장 신현국 박사)가 지난 19일 본교 체펠실에서 2012년도 학위수여식 및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목회학석사 4명과 종교학석사 2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구자경 목사(재미고신 증경총회장)는 졸업생들의 사역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회자가 되기를 격려했다.

이어진 학위수여식에서는 교무처장 조대준 박사가 사회를 맡았고, 신현국 총장의 학위 수여와 훈사 및 감사패 수여에 이어, 한국 고신총회 윤지환 원로목사가 축사했다. 격려사에는 재미고신 부총회장 박대근 박사가 나섰고, 이사장 신용규 목사가 축도함으로 이날 순서를 마쳤다.

이 학교는 1995년 LA에서 고려신학대학원으로 시작돼 캘리포니아 주교육국의 인가를 받고 한국 고신대, 러시아 북



복음대학교가 학위수여식을 통해 4명의 목회학석사와 2명의 종교학석사를 배출했다.

음주의신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후 2008년 기독교대학 학위 인준기관인 TRACS에 준회원 자격 인준을 받은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정회원 자격을 획득했다. 현재 문학사(성경신학) 과정과 종교학

석사, 목회학석사 과정을 제공하며, 생활과 사역 현장에서 공부가 가능하도록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714-527-0691 정한나 기자

# 작은 교회 목회자 모여 전도법 논의

## 일대일 전도 아닌 일대다의 관계 통해 효과적으로 전도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효과적 지역사회 복음화와 전도에 관해 연구하는 뜻있는 모임이 열렸다.

효과적 전도의 방법은 무엇일까. 이는 모든 교회가 언제나 고민해 온 문제다. 그러나 딱히 이렇다 할만한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교회가 이 방법으로 성공했다고 모든 교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에 지난 16일 작은 교회 목회자 10여명이 뭉쳐 효과적 전도법을 논의했다. 이들은 3-7년 정도 목회 경력을 갖고 있으며 작은 교회에 시무하며 직접 전도를 경험한 목회자들이었다. 그들은 전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자신들의 사례를 나누고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전도의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주님의교회 김병학 목사가 개발한 팀전도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오고 갔다. 김 목사는 “이 전도 전

략은 우리 교회가 지난 5년간 시행하며 큰 효과를 봤다.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고, 전도에 스트레스 받는 성도들이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라 소개했다. 전도대상자와 일대일의 관계가 아니라 일대다의 관계를 맺는 것이 핵심이다. 여러 성도가 한 전도 대상자의 필요를 나누어 책임지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방식이다.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세미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으며 동시에 성도 역시 전도, 기도하며 훈련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김 목사는 팀전도의 실질적 방법으로서 목장을 통한 전도, 오이코스 전도 등을 꼽으며 각 교회마다 가능한 방법으로 팀 전도를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빅터 박 기자

# 미주장신 학위수여식 오는 2일 홀러튼장로교회에서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목사) 제32회 학위수여식이 오는 6월 2일 오전 10시 홀러튼장로교회(511 Brookhurst Rd. Fullerton, CA92833)에서 거행된다.

학위수여식은 1부 감사예배와 2부 학위수여식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 감사예배에서는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 강대은 목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후 이사장 김인식 목사가 축도한다. 이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8명과 목회학석사 31명이 학위를 받고 AST 과정 2명도 졸업한다. 문의) 562-926-1023 한주연 기자

# 담임목사 청빙

**Albany, NY에 위치한 올바니 한인장로교회에서 담임목사님을 초청합니다. 본 교회는 PC USA에 소속된 교회이며, 자체성전을 가진 41년된 교회입니다.**

**가. 자격**

1. PC USA에 소속 또는 가입요건이 되시는 분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한국 또는 미국내 신학교에서 안수를 받으신 분
3. 2년이상 목회경력이 있으신 분
4. 미국 거주 및 취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신 분
5. 한국어에 능통하고, 영어구사에 불편이 없으신 분

**나. 제출서류**

1. 이력서 (추천인 명단 3인 이상 포함)
2. 자기소개서 (목회비전 및 신앙간증 포함)
3. 가족소개서 (가족사진첨부)
4. 최종학교 증명서 및 목사안수 증명서 사본 각1부
5. 설교 테이프 또는 영상설교 (가능하면 설교원고 첨부)

**다. 서류마감: 2012년 6월 15일**

**라. 서류제출처: 이메일접수 및 일반우편접수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1. 이메일: kpcalbanync@gmail.com
2. 일반우편: Nam Soo Lee  
23 Lincoln Mall  
Schenectady, NY 12309
3. 문의사항: 이남수 장로 (518) 345-4887 또는 namsoo1212@gmail.com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본 교회에 대한 안내는 교회 웹사이트, www.kpcalbany.org에서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올바니 한인 장로교회

# 양로병원 노인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대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장애우사랑교회에서 12년째 양로병원 봉사를 하다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치매에서 벗어나고 외로움에서 이기기 위해 매일 찬송가를 암송함으로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나, 이 대회를 빛나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 봉사자분들을 초청하오니 바쁘신 시간을 나누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 **장소: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6월 16일(토) 오전 10시 / 12월 15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1등** 1명에게는 100불 상당의 물품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상당의 물품

\*\*\* 그리고 찬송가를 모두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 상당의 물품이 주어집니다. \*\*\*

\*상금 및 상품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체크이름: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 L.C.D**

---

**협찬**

필그림 오케스트라, 남가주교회협의회, 남가주주인목회회, 남가주 총회예지부, 벨엘장로교회, 엘에이사랑교회, Horizon신학대학교, 기독일보, 한솔종합보험, 크리스찬헬름, 라디오코리아, 마동환변호사그룹, 백보환의원, Allstar, Precision, 최진욱변호사, 재미남가주향해도민회, Los Angeles Downtown Lions Club

**+ 장애우사랑교회**

**☎ 연락처: 213-705-0404 / Fax: 213-251-8930**

주소: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 중국에서 장애아동의 어머니로 필리핀에서 고아들의 어머니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료를 받았다.

이러한 장애를 지니고 있던 자녀를 향한 사랑이 더 큰 사람으로 열매 맺어 중국 장애사역으로 꽃피게 된 것이다. 선교사 노부부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에서 1천4백여 명의 중국의 가난한 학생들에게 7만불의 장학금을 수여해 왔고 150대의 휠체어를 보급해 왔다. 뿐만 아니라 생활비 및 주택 보조 등 빈민구제 사역과 병원비, 약값 등 의료비를 꾸준히 보조해 왔다. 장애인교회 및 농아교회(가정교회)를 운영해 많은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은혜원 졸업 후 갈 곳을 찾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그룹 홈 사역도 담당했다.

만 60세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중국 정부의 체류 비자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더 이상 사역을 지속할 수 없게 된 고 선교사 부부는 작년에 필리핀으로 파송돼 선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장애인 사역을 해 온 것과 달리 필리핀에서는 고아들을 위한 은혜원(The Grace Home)을 세울 계획이다. 현재 고아원은 공사 중이며 6월이면 완공된다. 365일 아이들을 돌볼 시설 뿐 아니라 앞으로 일반 교회도 지을 계획이다.

은혜원 건축에 드는 비용만 해도 10만불 가량 필요하다. 고 선교사 부부는 알 게 모르게 헌금해 준 것을 다 투자하고도 2만불이 모자란 상황이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들어오지 않는 동네라 6백여 미터 떨어진 이웃동네에서 끌어다 공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필리핀 정부의 허가도 받아야 하니 쉬운 상황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선교사는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그분께서 쓰시는 도구일 뿐”이라며 얼굴에 격정하는 내색 하나 없다.

재정적 어려움 외에도 이들에게 또 하나의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육신의 고통이다. 아내 고순영 선교사는 2001년 갑상선암을 시작으로 폐암이 오고, 성대암, 결핵성 골수염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다. 백발의 아내는 항암 치료 후유증을 감당하기 힘들어 선교하기가 버거울 정도다. 이제 고 선교사를 사임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아내의 말에 남편 고영집 선교사는 “생명을 주시는 한 이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고 선교사는 선교지에 남편을 두고 홀로 항암 치료를 위해 LA에 왔다 갔다 하면서 미주 한인교회를 순회하고 선교 간증을 해 오고 있다. 치료차 선교지에 남편을 두고 떠나올 땐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어 보지만, 교회에 가서 간증집회를 하고 나면 받은 은혜가 너무도 커서 “하나님, 제가 잘못 했어요. 제게 주신 소명보다 육신을 더 사랑한 죄를 용서해주세요”라고 회개하고 만다.

오는 6월 말에 필리핀으로 돌아갈 예정인 고 선교사는 “황무지에 꽃을 피우기 위해선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며 은혜원 건축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 후원을 요청했다.

“우린 약함이 강함 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입니다. 약함수록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고영집·고순영 선교사에게 후원하려면 아래 주소로 체크를 보내면 된다. Pay to Order : CHMC(충현선교교회) Check 밑에 고영집 선교사 지원이라고 꼭 기록해야 함. Address Mail to : CHMC(Choong Hyun Mission Church) Attn: Rev. Jimmy Kim (323)356-3321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한국: 국민은행 (예금주: 고순영) 계좌번호 402601-04-025860 이메일: thegracehome@gmail.com

정한나 기자

## 고영집 고순영 선교사 인터뷰

회갑을 넘긴 나이에 중국 길림성 도문시(圖門市)에 선교사로 파송돼 8년간 장애인 사역을 해 온 고순영 선교사(75)를 만났다. 그는 2003년 남편 고영집 선교사(77)와 함께 충현선교교회를 통해 파송된 후 두만강 하류 북한 회령과 마주한 도문에 장애인특수교육학교 은혜원을 세워 장애인과 장애아동 30명을 돌봤다. 미국에서의 장애아 훈련 경험과 그룹 홈(성인 장애인들을 양육하는 공동체)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고 선교사는 반복학습을 통해 장애아동 30명 중 8명을 초등학교에 진학시켰다. 처음에는 교장 선생님이 장애아들을 학교에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지만 고 선교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으로 밀어붙였다. 이들을 초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지도했던 6년 반의 시간 동안 한 자리 뒷짐을 가르치는 데만 수천번, 수만번의 반복학습이 필요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국 그와 아이들은 해냈다.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 인식이 낮은 중국 사회에서 장애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그는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장애아들을 돌보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장애아들은 하늘에서 심어놓은 보화입니다. 이 아이들의 가능성을 보고 노력해 보십시오. 제가 6년 반 가르치니 그들도 해냈습니다”라고 말하며 그들이 장애아를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한다.

그는 또 학습 수준이 부족한 장애아들에겐 청소하는 법을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가르쳐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돕거나 농사짓는 법을 가르치기도 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분의 자녀들을 보내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목적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보화가 있습니다. 그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일흔을 훌쩍 넘긴 나이에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벅치지만 고 선교사 부부가 장애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유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들 관필이 때문이

다. 44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 있는 관필이는 이들 부부가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든 특별한 존재이다.

고 선교사는 한국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중 남편을 만나 결혼해 관필이를 임신했다. 임신 당시 결핵성 골수염을 앓고 있던 그에게 의사는 뱃 속의 아이를 유산하라고 권고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아이를 낳았다. 어렵게 세상에 나온 관필이는 태어났을 때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였고 의사는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단정했다. 아이는 8개월간 인큐베이터 안에서 지내며 생명을 유지했으나 4살이 되어도 제대로 서지조차 못했다. 관필이를 위해 한시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던 고 선교사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 미국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다.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미국에 온 그는 한국에 남겨 두고 온 남편과 세 아이를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식모살이를 하며 신앙의 힘으로 고통을 감내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아이들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결국 온갖 고생 가운데서 고 선교사는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맛보게 된다. 영주권을 받은 것이다. 그의 초청으로 남편과 아이들은 미국으로 건너올 수 있었지만 정작 관필이는 미국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재정 방침(6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계약을 해야만 할 수 있음) 때문에 올 수 없었다. 관필이의 병을 고치겠다는 일념 하에 모든 고통을 감내해온 그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고 선교사를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게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병원 보험을 들 수 있게 되어 관필이를 미국으로 데려 올 수 있었고 마침내 관필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스홉킨스 병원의 최고의 명의를 만나 치



고영집 선교사(좌)와 고순영 선교사(우)



고 선교사는 중국 현지 학생들에게 학업 장려를 위해 장학금을 수여하기도 했다.

## 총회인준 미주대한신학대학교 졸업식·학위수여식

미주지역 교역자 양성기관으로 대신총회 인준을 받아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 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 받은 미주대한신학대학교의 2012년 졸업식, 학위수여식과 2012년 가을학기 학생모집을 공고합니다.



**졸업식일시** 2012년 5월 27일 (주일) 오후 5-6시, 졸업식만찬 6-7시  
**장 소** 벨렐장로교회 (변영익목사 시무) 9가와 La Brea 서북코너  
**졸업생** B.A: 한상혁, 사라박 M.Div: 김해광, 이금자, 손순희  
D.Min: Ha Seo Yeong, Susie Yang D.D: Moon Josheph



## 2012년 가을학기 신입·편입·교단교육 학생모집

- 개 강** 2012년 9월 10일(월)부터-12월 20일(목)까지 1년 4학기제로 학점을 많이 취득할 수 있음
- 학 위 과 정** 전도사, 선교사, 신학사, 음악사, 신학석사, 목회학석사, 목회학박사, 신학박사 등
- 본교의특징** 학년제가 아닌 학점제로 각 학위과정을 단축하여 이수하여 학위를 받을 수 있음
- 교 단 교 육** 본교가 인정한 신학교 출신은 교단신학, 교단사, 교단헌법 3과목 이수하여 교단에 가입할 수 있음
- 수 강 료** 본교는 사명자를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반값등록금으로 수강하도록 장학금을 수여함
- 분 교** 토렌스분교(학장 김명구), 아메리칸스포츠포츠대학(학장 김영배), 과테말라(학장 김상돈) 사이버대학(학장 권오달)

## 미주대한신학대학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본교: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213)435-6067(교무), (909)635-5131(총장), daeshin94@gmail.com  
재단이사장: 류당열 박사, 총장: 강부웅 박사, 부총장: 변영익 박사, 대학원장: 유영열 박사, 본교학장: 박효우 박사



# Nyskc Movement 2012

## Nyskc Family Conference Indiana

July 2 - July 5

### “ Glory to the Name of Jesus ”

Principle of Nyskc Movement (Amos 9:-5) Nyskc Conference는 Nyskc Movement를 위한 성회를 말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의 Celebrate오 Banquet이며 Restoration of Worship을 위한 지상에서의 천국 훈련과 복음을 전파할 Disciples의 Prepartion이며 복음의 Troops가 되기 위한 Training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의 그루터기가 되기 위한 결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는 새 사람의 출발이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 시킬 미래 Leaders를 위한 Worship, Seminar, Forum & Workshop이며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Recovery하는 Blessing Revival을 말합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라”

#### Nyskc World H.Q. 조직위원회

총 재 : 피 종진 목사  
대표회장 : 최 고선 목사  
상임회장 : 디모데박 목사  
실무회장 : 이 병완 목사

#### Nyskc Learned Society 회복의 신학 학회

학 회 장 : 윤사무엘 목사

#### 행사 안내 및 등록문의 U.S.A.

대상 : Family & 목회자 부부  
장소 : Butler University  
4600 Sunset Ave.  
Indianapolis, IN 46208

등록마감일 : June 5, 2012  
참가비 : (교통비 별도)  
일반인 \$300, 목회자 1인 \$150  
T. 845.355.8829, 937.620.4834  
646.203.2644, 917.698.9965

#### 중부분부 준비 위원회

- 중부 본부 본부장 : 김 기철 목사(시카고제자들의교회)
- 중부 본부 총 무 : 안 행기 목사(한인벨앨침례교회)
- 총괄 준비 위원장 : 조 은성 목사(은혜장로교회)
- 부 준 비 위원장 : 강 호열 목사(아가페 침례교회)
- 총무 본과 위원장 : 김 태두 목사(인디웨스트 침례교회)
- 예배 본과 위원장 : 김 영수 목사(순복음 반석교회)
- 선교 본과 위원장 : 김 형주 목사(인디애나 한인장로교회)
- 인양 본과 위원장 : 박 정환 목사(블루밍턴 침례교회)
- 홍보 본과 위원장 : 윤 용필 목사(엘림 침례교회)
- 협력 본과 위원장 : 장 철승 목사(제일 장로교회)
- 차량 본과 위원장 : 송 재호 목사(새소망 침례교회)

#### 자문위원

- 유 근희 목사(베델크리스천교회)
- 김 동춘 목사(베델크리스천교회)
- 조 인호 목사(순복음인디애나교회)
- 반 기열 목사(인디폴한인침례교회)
- 장 우정 목사(제일순복음교회)
- 김 정하 목사(아바침례교회)

New Life  
Yielding for Manna  
Salvation for one by one  
Keeping for LORD's day  
Complete Offering



# Nyskc World Mission

www.nyskc.org / e-mail:nyskcmission@gmail.com



# 2012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 가능)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 Fax: 562-926-1025 / www.pts.edu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1 / Fax: 424-257-8136 / www.cohenuniversity.ac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 Fax: 213-381-0010 / www.iruniv.org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 Fax: 818-435-2441 / www.myccu.us

**솔로몬대학교**  
 Solomon University, SU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 28:18-20)  
 학위: 신학 학사/석사/박사 (BA, D.Min, Th.D), 교회음악, 문예창작  
 장학금 혜택 총장: 백지영 목사 부총장: Dr. Brent Price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 Fax: 213-487-737 / www.solomonuniv.org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꾼들을 양성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 hjung3155@gmail.com

**국제비전대학교**  
 정시/수시: (Offline, Online 강의)  
 학위: 학사/석사/박사 (D. Min., D.Miss., Ph. D.)  
 I-20 발행, 각종 장학금 지급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293-5745 / 213-610-4989 / www.vision.edu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 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 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학장: 김영화 목사

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el: 213-247-3652 / Fax: 310-609-141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 http://korean.fuller.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A., CA. 90019  
 Tel: 323-731-981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4055 Wilshire Blvd #419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9-8987

**미주개혁신학대학교**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2706 Wilshire Blvd. 1st Floor, Los Angeles, CA 90057  
 Tel: 213-736-6500 / Fax: 213-736-6504 / reformeduniv.org

**아메리칸 신학대학 및 대학원**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2-7356 / Fax: 818-773-8868 / 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하나님 앞에 섰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Tel: 562-869-7497 / www.mcniversity.org

**바울성경대학**  
 말씀을 개혁주의 신학안에서 바르고 깊이있게,  
 성경 66권 전체를 공부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언제나, 오실 수 있습니다.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Tel: 562-394-3342 / paulbiblecollege@gmail.com

**위클리프대학교**  
 Wyclif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는  
 개혁적인 신앙과 바른 성서해석을 가르쳐  
 여두움을 밝히는 지도자, 개혁의 새벽별  
 존 위클리프 같은 개혁자를 길러낼 것입니다

14631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604  
 Tel: 562-777-7078 / www.wyclifuniversity.net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 www.aeui.org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

# 헤어칼라 전문점

미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0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프로페셔널- 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미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HAIR SKIN**

3800 Wilshire Blvd., #2076 L.A., CA 90010 Tel: 213-739-1022  
 스킨케어: Tel: 323-919-3994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10:00 PM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LA 최고의 워치-머러리 콘도 상가 2층  
**일사 + 웨스트턴 코너**





## 최적의 입지와 서비스로 높은 선호도 자랑하는 윌리엄케리국제대학 수련회장

천혜의 자연 벗삼아 수련하기에 안성맞춤

아름다운 태평양 연안을 따라 장미의 도시, 파사데나에 위치한 윌리엄케리국제대학. LA 다운타운과 인접한 최적의 입지는 물론 자연이 빛을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제공하는 이 대학의 수련회장은 편안한 휴식 속에서도 현대선교의 가장 故 알프 윈터 박사의 체취를 찾는 크리스천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샌가브리엘 산 그늘 아래 파사데나 북동쪽에 위치한 윌리엄케

리국제대학 수련회장은 총 면적 35에이커에 달하는 대지에 위치해 있으며 최적의 서비스와 편안한 분위기의 시설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최고의 명소인 디즈니랜드와 다저스경기장 등 주요 명소와의 접근성도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라 머무는 기간동안 관광도 즐길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윌리엄케리국제대학 수련회장은 예전전도단

을 비롯해 벨엘교회, 영락교회, 새길교회 등 여러 선교단체들이 연간 행사를 위한 장소로 이용하는 등 많은 이들이 선호하고 있다.

얼마 전 수련회장을 이용한 최미란 권사는 "대회 기간 내내 신선한 재료로 다채로운 요리를 대접받아 감사했다. 특히 저녁마다 한국 음식이 나온 것은 참석자 모두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면서 "음식 맛도 훌륭했고, 저녁식사 때 엔 줄 서서 음식을 받지 않고 식탁

에서 서브 받도록 배려해 줬 스테프의 친절하고 따뜻한 서비스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최 권사는 또 "깨끗하게 꾸며진 기숙사 객실과 투숙객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배려하는 스테프들의 친절함과 편안함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아이템까지 더해 비행기를 타고 오느라 지친 몸을 풀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데 안성맞춤이었다"고 덧붙였다.

수련회장에 있어서 다양한 공

간과 식당은 이용객들에게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준다.

프랜스리셉션 홀은 나무 바닥과 넓은 공간으로 공식 행사를 개최하기에 좋은 장소다.

피어스 식당은 넓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음식을 먹으며 답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신선한 샐러드 바와 따뜻한 음식, 맛있는 홈메이드 빵과 과자들이 매일 제공된다.

차이나라운지는 건물 안에서 삼삼오오 모여 모닥불을 쬐며 함께 훈련받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다.

아일워드와 타운센드 게스트룸에는 수련회 또는 훈련을 위해 투숙하는 이용객들을 위한 1~4인용 침실이 준비돼 있다. 편안한 잠자리는 쾌적하게 될 수 있게 도우며 더불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 준다.

워드는 캠퍼스에서 결혼식 장소로 가장 유명한 곳으로, 평화로

**갈릴리신학대학 & 랭귀지스쿨**  
GALILEE SCHOOL OF THEOLOGY & LANGUAGE SCHOOL

목회학석사 (M.Div.) 신학석사 (S.T.M.)  
목회학박사 (D.Min.) 신학박사 (S.T.D.)

SEVIS인가 대학, 자체 I-20발행  
ESL 프로그램 (음성학적 영어학습방법론을 개발)

Tel. 213-746-1004 / FAX. 213-746-5004  
1000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번비루,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수련회장 이용을 위해서는 웹사이트 [www.wciuproperties.com/conferences](http://www.wciuproperties.com/conferences)에서 예약하거나 이메일([conference@wciu.edu](mailto:conference@wciu.edu)) 또는 전화 (626) 398-2415로 연락하면 된다.

▷윌리엄케리국제대학 수련회장 1539 E. Howard St. Pasadena, CA91104

정하나 기자

4th ANNIVERSARY

사랑의 방주 교회 창립 4주년 기념

**부흥회** 및 **임직예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계 2:10)

**부흥회**

1day 5월 25일 (금) 오후 8시  
2day 5월 26일 (토) 오후 8시  
3day 5월 27일 (주일) 오후 12시 30분

**임직예배** 5월 27일 (주일) 오후 7시

**강사**  
김성일 목사  
(일산일암교회 담임목사)

**장소** 사랑의방주교회 (담임 방익수목사)  
(13955 Yale Ave, Irvine, CA 92620)

**문의** 949-654-0191

**주최** 사랑의방주교회  
[www.thearkoflove.com](http://www.thearkoflove.com)

**주관** 남,녀선교회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EM)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 (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현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 새벽 예배 6:20

**갈릴리션교회**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라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com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미찬양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침례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항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양성합창집회 오후 6:00  
3부예배 오후 1:00 금요찬양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일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후 1:00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예배 오후 2:00 중. 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글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진원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EM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laopendoor.org

**김성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6:30 (화-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사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 (213) 598-0191

**손병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박용덕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8:00 **박혜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6:30 (화-금)  
유치, 유년부, 중고등부 오전 11:30

**남가주헬로쉽교회**  
온전한 심자기의 능력으로 함께 나아가는 교회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1부예배 오전 8:00 한아침년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EM/Youth예배 오후 12:00 오전 6:00 (토)  
AWANA 예배 오후 12: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매일 마지막주)

**늘푸른선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 92806  
T. (714) 632-9191, 9192 / missionway.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EM) 오전 9:45 중교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찬송이신 주여 나를 고치소서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기도회 오후 8:00  
중교등부예배 오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청년토요예배 오후 6:00

**둘로스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자 주님과 사랑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이성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사바드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중교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손인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크리스천이다. 내가 크리스천이다. 하나님은 믿으소서.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중보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학성회예배 오후 12:00

**벤틀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학교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성일 담임목사**  
주말학교 오전 11시 토요일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한국어 학교 오전 9:30 (토)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15617 Burwood Rd., Victorville, CA 92394  
T. (760) 220-3263, (760) 542-9366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신 축복받은 우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살려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 교회 및 선교교회

1부예배 오전 8:0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내가 살기 나무의 가치를 보나이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1부예배 오전 7:30 5부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EM예배 오후 12:15  
3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12:15 새벽예배 오전 5:45 (화-금) / 6:00 (토)

**세리투스장로교회**  
세리투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901  
T. (562) 860-5451 / ilovecc.org

**김수철 담임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  
(다문터문 4기 Crocker St.)  
1부기리예배 오전 7:00  
2부센티예배 오전 9:30

**소중한사람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1856 W. 11th Place, Los Angeles, CA 90007  
T. (213) 385-4515 / F. (213) 385-547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박상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시온성중양교회**  
은혜, 사랑, 선교로 복음의 빛을 비추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995-2868 / F. (714) 995-0169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EM예배 오전 10:00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할만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7:45 중교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지 사론 담임목사**  
오후 7:30 오후 7:30  
(매일 S.D.F., Power minister)

**열방사랑선교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열매로 온전한 영혼구원과 해방, 내 몸 이루는 사랑, 생명의 사랑을 감동하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인도하는 선교교회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후 1:30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1부예배 오전 8:00 **김혜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성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김세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11:45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7:30 (토)

**임마누엘선교회**  
성령을 따라 (갈5:16)

1818 S. Western Ave., #200, LA,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0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교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호응, 소 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르고 화평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회**  
서로 사랑하라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말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성현경 담임목사**  
스페인예배 오전 10:00 오후 6:00 (토)  
한국어 오전 10시 (필로우십) 수요일예배 오후 7:45  
오후 12:00 (분당)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1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김철민 장로**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김기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50 새벽기도회 오전 5:25(화-금)  
3부예배 오전 12: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  
4부예배 오후 2:22

**LA사랑의교회**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386-2233 / F. (213) 386-2243

'감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치유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자  
www.samcare.org

**SAM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 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 흑인 교계 오바마에 반발 “흑인 편에? NO! 하나님 편에”

## “동성애 타협은 곧 간음” 비판 목소리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동성결혼 지지 발언의 여파가 쉬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최근 미국 내 정치적 목소리가 큰 흑인 목회자인 해리 잭슨 목사(메릴랜드 볼티모어 호프크리스천처치)는 ‘동성결혼에 대한 흑인 교계의 타협은 곧 ‘간음’이라고 표현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결혼과 같은 목적인 신학 이슈에 대해 어려운 선을 긋고는 흑인계 기독교인들이 그의 신념에 타협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지금 흑인 교계에 던져진 질문은 ‘흑인의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7일(목)에는 테네시주 멘피스 흑인목회자협의회(Coalition of African-American Pastors)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바마 대통령의 동성결혼 지지 발언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날에는 1960년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함께 시민권의 운동에 참여했던 리더 빌 오웬 목사도 참석했다. 오웬 목사는 “동성결혼에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진화’는 향후 사회 뿐 아니라 흑인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 보면서 “다음주 내내 흑인 교회들을 찾아 다니며 동성결혼이 시민 권의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 언론의 흐름에 반기를 드는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 교회와 함께 가길 원하며, 그



오바마 미 대통령. ©백악관 홈페이지

의 동성결혼에 대한 진화 방향은 성경적 원리에서 벗어났으니 되돌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웬 목사의 ‘진화’에 대한 발언은 지난 2년간 자신의 동성결혼에 대한 생각이 진화하고 있다는 유보적 견해만 밝힌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확실한 지지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동성결혼 지지에 대한 흑인 기독교계의 입장은 크게 3분류로 나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결혼 지지자들의 압박을 받아 결정할 아쩔 수 없는 상황이 라면서 여전히 그를 지지하는 기독교인 ▶오바마 대통령을 찍지 않거나 투표에도 나가지 않을 기독교인(이 그룹은 오하이오 주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오바마 낙선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되려 공화당 미트 롬니에게 표를 던질 기독교인이 그것이다.

잭슨 목사는 “첫째 유형은 ‘명목상 기독교인’일 뿐”이란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의외라고 느낀 교계 지도자들은 거의 없는 듯하다. 오웬 목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다”면서 “그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매우 실망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전 담임목사였던 제레마이아 라이트 목사는 교회에서 ‘동성결혼을 위한 헌신 예배’를 드릴 만큼 동성결혼에 대한 지지자였으며, 교인이었던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잭슨 목사는 “수년 간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결혼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의견을 내비쳤지만, 이번 공식적인 행동이 이전의 말보다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된다”고 말했다.

권나라 기자

# “교인들이 동성애 문제로 떠나... 선택 여지 없다”

## PCUSA 한인교회, 교단 탈퇴 본격화 되나

PCUSA 동부한미노회가 지난 3월 동성애자 성직 허용 문제로 교단 이전을 원하는 교회들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하은교회(담임 고훈 목사)가 첫 이전을 신청했다. 이는 동부한미노회 내에 일부 교회들이 교단 이전을 적극 검토해 왔던 상황에서 매우 주목 받고 있다.

현재 동부한미노회 내에서는 원로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교단 이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노회 지도부는 PCUSA 총회가 밝힌 ‘평화적인 교단 이점 허용’ 방침에 따라, 최대한 교회의 권익과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하은교회 고훈 목사를 만나 교단 이점을 결정하게 된 계기와 그간의 과정에 대해 물었다.

**-교단 이점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이후 처음 신청한 교회가 됐다. 교단 이점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있는가.**

PCUSA 교단이 동성애자 성직을 사실상 허용했다는 것이 알려진 이후, 교회 안에 교단을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중직들 사이에서 계속 나왔다. PCUSA 교단이 동성애자 안수를 허용했다는 소문만으로도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있다. 그 성도들이 하은교회를 나가는 과정에서도 많은 아픔을 겪었다. 이 교회에서는 기도도 안 된다면서 나간 이들도 있다.

노회마다 결정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줬지만 평신도들은 노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교단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교회를 옮기고 싶어 한다.

**-현재 동부한미노회의 원로들은 한인교회들이 교단을 떠나지 말고 신앙노선을 분명히 하면서 PCUSA 교**

단을 위해 기도하자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노회에서는 교단 이점을 신청한 첫 교회가 됐는데, 노회가 교단 이점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지었고 이에 따라서 신청하게 된 것이다. 성급하게 움직인다는 지적도 받았지만 하은교회로서는 그동안 많은 고민과 아픔이 있었다.

오래 전부터 동성애 문제로 하은교회 성도들은 마음 아파했다. 교회에 새롭게 출석하는 분들이 멤버십 서약을 할 때 맨 마지막 문항에 ‘교단의 신앙노선에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가 나온다. 현재는 그 신앙노선 부분을 교회의 지도와 권면에 순종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 가고 있지만, 당장 멤버십 서약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 피치 못할 상황이다.

**-이제 많은 교회들이 하은교회의 교단 이점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교단을 떠나는 첫 케이스가 된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가.**

많은 노회원들과 소속 교회들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영결결에 교단 이점을 신청한 첫 케이스가 됐다. 노회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 평화롭게 헤어지자는 취지이기, 최대한 노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순조로운 과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괜히 건방지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사실 교단 이전에 대한 걱정보다는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다른 교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혼란이 생길까 봐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도들이 동성애 문제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고훈 목사

-동부한미노회에 교단 이점을 신청한 것은 언제인가.

“5월 1일 목회위원회가 모이는 날에 신청을 했다. 교회측 위원회인 SCC는 4월 당회에서 구성했다. 7인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노회에 보고를 올렸다.

노회에서 처음 교단 이점 신청을 받은 것인데 좋은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주셨다.

**-어느 교단으로 이점할 방침인가.**

PCUSA에서 제시하는 4개 교단을 두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 현재 하은교회는 교회측 위원회인 SCC에서 각 교단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다. 그 중 ECO(The Evangelical Covenant Order of Presbyterians)가 그래도 가장 은교회와 맞을 것 같다는 것이 많은 성도들의 의견이다. 교단 이전의 이유가 동성애 문제나 동성애 문제를 제외한 신앙노선이나 내부의 직제 등이 PCUSA와 다를 것이 없는 ECO로 선택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할지 모른다.

**-교단 이점 이후 교회 안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

교단 이전에 대해 이미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중론이 모였다. 때문에 교단 이전 문제로 교회 안에 혼란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교단만 이전되는 것이기에 교회 안에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 고 본다.

김대원 기자

#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종교는 기독교

최근 오픈도어선교회 칼 몰러 회장이 “기독교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박해받는 종교”라고 지적하면서 “국제 경찰의 역할을 감당하는 미국이 수백만의 생명을 억압과 옥살이,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당부했다.

몰러 회장의 이러한 발언은 오픈도어선교회 뿐 아니라 퓨리서치 그룹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결론이다. 한 예로, 2011년 종교와 공공생활에 관한 퓨포럼 연구에 따



칼 몰러 회장

르면 전 세계 인구의 70%가 종교적으로 편협한 사회에서 살고 있으며 전 세계 인구의 32%가 사회적 혹은 정부 차원에서의 종교적 적대감의 증거를 경험하고 있다.

몰러 회장은 “기독교 박해 현상은 타 종교를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이슬람 사회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고 우려를 표하며 “이슬람 국가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기독교 교리와 메시지를 왜곡하는 데로부터 비롯되며 문맹 및 빈곤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채질한다”고 덧붙였다.

몰러 회장은 “어느 국가건 개인의 믿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기독교 박해 완화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손현정 기자

# 교회 바자회 마켓 반찬 취급하시는 분 하속하시는 분 (도매가에 드립니다)

## 취급 품목

오징어젓	고추젓	연근조림	명란젓	마늘쫄무침
어리굴젓	양념게장	우렁된장	창란젓	고추잎무침
가리비젓	양념갯잎	냉이된장	낙지젓	장어구이포
황새기젓	간장갯잎	간장고추	조개젓	파래무침
더덕무침	된장갯잎	된장고추	갈치젓	무말랭이

\* 플라스틱 그릇 무료 제공합니다.

3109 W. Olympic Blvd #D  
Los Angeles, CA 90006

서광식품(213)256-4707

#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최저 1¢  
최저 1장

##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탈전문!



칼라  
카피

# FMB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www.fbmcopiers.com



#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을 새로운 성도에게 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발원한 사랑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발원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먼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놀랍도록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타락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탐자와 같은 인생을 위하여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롬5:8).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은 우리를 택하시어 예수 안에서 부르시며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고난이나 즐거움이나 환란이나 평안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마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것"(롬8:30)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성숙을 책임지시며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증거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허물진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어 갑니다.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교회

예전에 이관희 목사가 쓴 수필 "다시 연애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를 읽었다. 목사의 글 치고는 제목이 좀 과격적이다 싶어 호기심을 가지고 읽어보았는데 꽤 감동적이었다. 이 목사는 자신이 배운 한국어 중 가장 훌륭한 말이 "연애"라는 단어였고 나이든 지금까지 그 말만 들으면 가슴이 뛰었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러면서 목사는 평생 연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인생을 살면서 단 한번도 누군가를 가슴이 저리도록 사랑해 보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 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해

## 다시 연애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보지 않고는 결코 시를, 문학을, 철학을, 정치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누군가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과학자의 과학은 결국은 파괴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썼다.

이 목사는 공산주의 같은 이념에 빠지거나 수백만의 사람들을 냉혹하게 죽이는 사람들은 필경 누군가 한 사람의 영혼을 가슴 깊이 사랑해 본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러기에 온 인류가 시급히 회복해야 할 것은 젊은 날 이쁨도 모르는 이웃 동네의 처녀를 생각하며 밤을 세는 그 사랑의 가슴이라고 말하며 컴퓨터의 시대를 로미오와 줄리엣의 시대로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본래 문학을 전공하신 목사의 글이기에 다소 문학적이고 낭만적인 감상이 있기는 하지만 강조하고자 하는 그 주제만큼 충분히 공감이가 간다.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이 교회들을 향하여 첫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의 요지와 일맥상통하는 글이 아닌가 싶다.

왜 문득 이 글이 다시 생각났는가 하면 며칠 전 아침기도를 마

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마음이 붕 뜬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기분이 묘하게도 꼭 연애하는 기분같이 느껴졌다. 이 나이에 새삼 누군가와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웬 기분인가' 하고 생각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주님을 향한 사모와 기쁨의 마음이였다.

몇 년 전 내 기도의 내용이 조금 바뀌었다. 이전에는 기도의 가장 큰 즐거움이 언제나 간구였다. 교회를 위해, 가족들을 위해, 하루의 사역을 위해 간구하는 내용이 전체 기도의 70-80%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몇 년 전 갑자기 매일 이렇게 주님에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만 하다가 평생을 보낼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 자신의 필요나 연약함이 많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조금 더 많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조금씩 늘려갔다. 주님을 향해 "I Love You Lord! I Love you

Jesus!"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고백을 하고 나면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들이 마음속에서 샘솟듯 솟아 올랐다. 한편으로는 주님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만큼!" 하면서 못 박힌 손을 펼쳐 보여주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기도 속에 조금씩 사랑의 고백과 느낌이 깊어져 가면서 가끔씩은 이 아침처럼 새롭게 연애를 하는 듯한 기분이 들곤 한다. 마치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이나 하루 온종일 마음 속을 떠나지 않듯이 주님의 모습과 음성이 마음 속을 꽉 채우는 느낌을 받는다.

정말 그렇다. 이것은 뜨겁고 설레는 연애의 감정이다. 그러나 마누라 눈치 볼 이유 없고 양심에 단 한 점 거리낌 없는 연애이다. 그리고 이 연애의 감정이 있는 하루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다. 그래서 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도 외치고 싶다.

"다시 연애하는 세상, 다시 연애하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 행복을 만들어 가며 사는 부부



**현순호 목사**  
에버그린한인교회

지 못한다. 별것 아닌 일에 큰 소리를 내며 다들 뿐만 아니라 종종 손찌검을 하고 심지어 기물을 부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자녀들의 미래에 지장을 줄까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미룬 채 예정 없는 결혼생활을 지속해 나야 할 뿐이다. 통계에 따르면 이렇게 지내는 부부가 생각보다 많다.

**무덤덤하게 사는 부부:** 어떤 연이 되었든지 두 사람이 만나 자녀를 낳고 사는 이상 불만이 있어도 '어디 완전한 부부가 있겠냐'며 자위한다. 어느 한 쪽의 감정이 격해지면 다른 쪽이 참는다. 대개는 남자 쪽이 쳐주고 그것을 아는 여자는 그 점을 이용해서 끝까지 밀어붙인다. 남자도 그것을 알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 저주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행복을 만들어 가는 부부:** 두 사람의 만남을 하늘이 짝지어 주

신 것으로 여기며 반려자를 죽도록 사랑한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상대를 나에게 맞추려 하기보다는 내가 상대에게 맞추려 하며 가능한 상대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한다. 기쁨 때는 상대방을 칭찬하고 어려울 때는 격려하며 그 어려움으로 정을 쌓고 새로운 일을 창조하는 기회로 삼는다.

내가 존경하는 모 장로는 과로로 쓰러진 후 생명은 건졌으나 허반신 마비로 휠체어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가 휠체어를 타고 지낸지 어느덧 10여년이 지났다. 그런데 그는 언제나 천사와 같이 활짝 웃는다. 그는 모든 욕심과 욕망을 깊은 바다에 수장하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지낼 뿐더러 시간을 쪼개 자기처럼 고생하는 분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을 격려한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자기보다 더 어

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권유한다. 그의 아내는 교회 봉사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이주여성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남편과 같이 외출할 때 그녀는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남편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차에 태우고 내린다. 목욕시키고 머리도 다듬어 주고 음식을 준비하는 등 그녀가 감당해야 하는 많은 어려운 일에도 조금도 힘들다는 내색없이 오히려 남편이 살아있는 것, 그 자체로 만족한다고 말한다. 그 영역 속에서 감명 깊은 시를 써 문단에 등장한지도 오래되었다.

부부의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성경의 말씀대로 두 사람은 한 몸이 되어 기쁨 때 감사하고 어려울 때 서로 아픈 곳을 싸 매주면서 험난한 세상을 사는 것이다.

###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맹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트,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718) 228 - 950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경산 한의과병원** | **원장 류재규**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 경산한의과대학 교수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몰 2층) LA, CA 90006



(KC의 살아있는 세무 정보)

### IRS 권장사항:

### 왜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가



KC CHOI  
TAX HELP TEAM

전 IRS 행정관, 감사관, 수사관  
40년 경력의 세법변호사, CPAs  
자산동결 및 은행구좌 차압해결  
밀린 세금 삭감, 세무감사 대비

면 좋은 기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가 포함됩니다. 이들 재무제표는 은행이나 채권자와 거래할 때 도움이 되고 사업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 손익계산서는 특정 기간 동안의 사업 소득과 비용을 표시합니다.
- 대차대조표는 특정 시점의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을 표시합니다.

#### 자금 출처 파악

여러분은 다양한 출처로부터 금전이나 자산을 받으므로 기록을 통하여 그 출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영수액과 비사업용 영수액을 구분하고, 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 공제가능 비용의 추적 관리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기록하지 않으면 세금 보고서를 작성할 때 비용을 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세금 보고서 작성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좋은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들 기록은 보고하는 소득, 비용 및 세액 공제를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들 기록은 비즈니스 모니터링 및 재무제표 작성시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 세금 보고서에 기재된 항목 입증

IRS의 조사에 대비해 항상 비즈니스 기록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IRS가 귀하의 세금 보고서를 검사할 경우 보고된 항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기록을 완전하게 유지하고 있으면 검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IRS의 권장사항을 기본으로 작성되었으며, 두번째 이야기에서는 어떤 기록들을 유지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213) 364-4515

현장에서 많은 고객들을 상담하다 보면, 간단한 세무 정보나 상식을 간과해서 큰 일을 초래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요행을 바라는 경우도 볼 수 있고, 또한 갑자기 날아온 IRS의 청구나 편지로 당황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큰 벌금을 물기도 합니다. 심지어 경제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사례들도 많이 접했습니다.

이런 현장 경험들을 통해 최소한 기본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세무 정보들을 한인들에게 알려 드려야겠다는 취지로 (KC의 살아있는 세무 정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비즈니스 텍스에 대한 기본 상식부터 시리즈로 전해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좋은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귀사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기록은 다음 사항에 도움이 됩니다.

#### 비즈니스 진행 상황 모니터링

비즈니스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려면 좋은 기록이 필요합니다. 기록은 비즈니스가 개선되고 있는지, 어떤 물건이 판매되고 있는지 또는 어떤 변화를 주어야 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좋은 기록은 비즈니스 성공 가능성을 높여 줍니다.

#### 재무제표 작성

정확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려

## SB1172를 지지해 주세요



사라 김 대표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

SB48에 이어 SB1172가 합법화 되는 일에 반대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용사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12년 2월 캘리포니아 민주당의 상원의원 테드 리우(Ted Lieu)에 의하여 제출되어 5월 15일 현재까지 계속 캘리포니아 정치인들에 의해 통과되어 올라오고 있는 SB1172는 미국과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동성애자로서의 삶이 힘들어 치료를 받으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아픔을 주고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악법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오늘 여러분의 신속한 행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는 6월 1일 후, 월요일 혹은 목요일에 시작되므로 아주 시급합니다. 이 법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엄청난 파장이, 특별히 어린이와 이미 동성애자인 사람들에게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과 이미 동성애자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치료받을 자유와 권리가 법에 의해 제약되기 때문입니다.

#### 어린이들에게 가는 피해

이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성(sex)을 바꾸는 것이 허락됩니다.(sexual orientation change) 동성애자가 되기 전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심리적, 의학적으로 상담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SB1172가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들은 어릴 때 성전환을 할 수도 있고 동성애자로 살아가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결정이 옳았는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18세 이후가 되어야 상담받을 수 있

니다. 즉, 상담을 받고 안 받고를 어린이들이 결정할 수 있게 되며 자녀들의 동성에 영향을 치료하기 위해 부모가 어떤 상담을 제시하거나 정상적인 삶의 모델을 제안하는 것도 저지되고 합니다.

#### 동성애자들에게 가는 피해

그동안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성경적 창조 원리에 의한 치료와 심리 상담을 통해 성공적으로 고침을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동성애는 선택에 의한 삶의 방식으로서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이 의사와 과학자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만약 SB1172가 정식 법안으로 통과된다면, 여지껏 많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를 치료하던 기관들이 치료방법에 있어서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의 법은 성경, 미술, 음악, 심리 상담 등

이 현재 공립학교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 SB1172를 반드시 반대해야 하는 이유

▲이 법안은 SB48 이후 또 다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정부의 1)우리 자녀들의 정체성 보호에 대한 침해이며, 2)학부모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침해이고, 3)성경적, 창조론적 치료와 상담을 하는 기관들의 자유에 대한 침해입니다. 한마디로 캘리포니아 시민의 개인 사생활 침해이며 언어적 침해입니다.

▲이 법안은 책임 전가와 잘못된 비판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동안 성경적 또는 심리 상담을 통해 동성애자들이 고침을 받았던 경우들을 비꼬고 잘못된 비판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적, 심리적 치료

래되는 위험이 많으며 검증되지 않은 의학과 잘못된 과학 정보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마치 많은 검증 자료를 가지고 법안을 제출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쪽에서 조사한 결과, 근거로 사용된 자료는 단 하나 뿐이며(SB48처럼), 이들이 사용한 자료는 전혀 어떠한 과학적, 의학적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성경의 남녀 창조적 원리를 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동성애자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난다는 근거나 검증된 자료는 역사상 한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껏 근거없는 정보나 잘못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동성애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돌아 다니며 사람들을 혼돈시켜 왔으나, 그 자료들이 잘못되었다는 기사들은 새 사람들이 보지 않을 작은 구석에 조그맣게 수정되어서 나오곤 했습니다.

#### 우리가 지금 취해야 긴급 행동

지금 밑의 링크로 가셔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Zip Code를 넣으시면 여러분 지역구의 상원의원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SB1172를 VETO(거부)하라고 말씀하세요. 시간과 여유가 좀 있으면 신분은 두번째 링크로 가시면 상원의원 리스트를 보실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더 많은 상원의원들에게 연락해 이 법안을 VETO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Zip Code로 내 지역구 상원의원 찾기:  
<http://www.leginfo.ca.gov/yourleg.html>  
모든 상원의원 찾기:  
<http://senate.ca.gov/senators>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들과 성전환자들도 사랑하시며 지금도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속히 주님의 자녀가 되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어 진정한 사랑과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오늘 잠시라도 그들의 회복과 행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로 가시면 한글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치료받을, 치료할 권리 제약하는 악법

#### 자녀의 동성애 치료, 부모도 관여 못해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건강한 가정, 결혼, 성경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치료를 보장해 주고 있었습니

다. 이 법안의 아이러니 한 점은 동성애자들이 정상적인 정체성을 갖도록 돕는 상담과 치료들은 허용하지 않지만, 평범한 이성애자들이 동성애나 양성애자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동경하도록 하는 상담이나 치료는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학부모들에게 가는 피해

이 법안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상담받는 것을 원해도 그것을 금지합니다. 참고로, 이미 우리 어린 자녀들은 학교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안중은 발언이나 행동을 보일 경우 교사들에 의하여, 부모님과 의사의 허락 없이, 학교 내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 상담은 동성애자, 성전환자를 동경하게 하고 그들의 삶이 정상이라고 가르쳐 주는 상담입니다. 부모들의 동의도 없이 부모 뒤에서 이런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

지금의 동성애자들에게는 위협과 스트레스가 되는 치료법이라 주장하는 이 법안은 특별히 기독교 상담자와 기관들을 향해 동성애자들의 자살충동, 스트레스, 우울증에 책임을 지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책임 전가입니다.

▲어린이들이 동성애에 대한 감정이나 관심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상담과 치료를 거부하게 하여 의사와 심리학자들의 상담 권한도 제약하고 침해하고 있습니다.

▲비록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상담받는 것을 원할지라도 학부모의 권리가 무시됩니다.

▲“동성애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이므로 그 정체성이 변화될 수 없다”는 주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말을 바꾸어서 양성애 또는 동성애의 삶을 살아 보라고 권하며, 이런 삶을 통해서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로 다시 태어나 즐거움을 누리라 합니다. 그런 삶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정부와 법안을 통해 지지하며 가르치려 합니다.

▲이 법안은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로 바뀌면 이로 인해 초

# GOLDEN STATE UNIVERSITY

School of Oriental Medicine

## 골든 스테이트 한의과 대학

"전인 치유 사명을 기도와 말씀, 예술, 건강교육을 통하여!"

### 가주 한의사 면허 취득반

- 파격적인 장학금 제도 (유자격자 50%까지)
- 최고의 교수진, 최고의 교육환경 (대학 2년 수료 또는 동등한 학력 소지자)

신입생 모집

### 평생 사회 교육원 운영

누구나 한의를 쉽게 배울수 있는 기회!  
한의학 과목 수강시 Credit 인정! (유자격자)  
(한의학 기초반, 진단학 교실, 침구반, 본초교실, 지압, 가공)

편입생 모집

### 중. 장기 선교사 훈련반

양·한방 진단, 영양치료, 경락치료, 운동물리 치료  
단기 의료 선교 팀 보조사 훈련  
각 교회 의료 선교 사역팀 훈련 의뢰 받습니다.

### 특혜 1. 일대일 임상지도 2. 취업, 선교지원 3. 자녀관리

9047.E. Florence Ave. #L. Downey, CA 90240  
website : <http://goldenstateuniv.us>

입학문의 : (562) 622-3368 / [gsu\\_inc77@yahoo.com](mailto:gsu_inc77@yahoo.com)

총장 : 김성일 한의학 박사, 여목사

후원 : Holy 의료 교육 선교회, Holy 한방 병원

### 대학 병원 진료 쿠폰

무료진료 상담, 치료비 50%, 유능한 임상 전문의

진/료/과/목  
부인과 : 생리불순, 경년기 증세, 비만  
남성과 : 전립선, 스트레스성 분노, 비만  
노인과 : 치매 예방 보약, 골다공증 예방 보약, 몸 시림 보약  
청소년과 : 여드름, 비만, 위염  
유소아과 : 발육 성장 촉진, 감기 예방, 비만예방

예약 전화 : 562-965-5112



### 韓-中 신학자들

## 기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논의

2012 한·중학술대회 열려



한중학술대회에서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신학자들이 기독교와 사회에 관해 의견을 발표했다.

중국절강대 기독교와타문화연구원, 장신대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 기독교학문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한·중 학술대회'가 "기독교가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18일 오후 2시 장신대 세계교회협력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의 근대사, 중국신학 및 한어신학, 기독교가 중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으며, 강사로는 절강대 왕쯔청 교수, 왕소초 교수, 왕젠다 교수, 장신대 임성빈 교수, 임희국 교수, 한성대 윤경로 교수가 나섰다.

이 세 신학은 각자의 집단과 목표를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왕쯔청 교수는 "한어신학은 교회전통을 근거 삼아 신학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닌, 기독교 학술을 서학전통의 한 구성요소로 보고 서학전통이 중국 인문전통을 어떻게 갱신하며 풍부하게 하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라며 "이 점은 한어신학의 인문성을 부각시키는 반면 한어신학이 특정학술집단에 한정되어 있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한 후, "이런 제한을 뛰어넘기 위해 한어신학의 다원화, 즉 서로 다른 한어신학간의 대화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왕쯔청 교수는 '다원화를 지향하는 한어신학'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90년대 이후 한어(汉语, 중국어)학계의 몇 가지 신학운동을 살핀 후 한어신학의 함의 및 다원화된 발전 형태를 고찰했다. 왕 교수는 한어신학에 대해 "광의적으로는 한어 신학자라면 모든 기독교연구논문이며, 협의적으로는 80년대 말 중국 인문학자들의 자발적 기독교학술연구"라고 소개했다.

80년대 이전 중국 지식인들은 기독교에 대한 거부와 비평의 태도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개혁개방 이후 서방문화를 흡수하고자 하는 경향이 증대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개방적·이성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고, 한어신학은 문학기독교인들의 신학논단을 담아낼 수 있는 틀로서 발전해 갔다.

이어 왕쯔청 교수는 췌신핑 교수의 연구를 인용, 중국이 직면한 신학을 중국신학·한어신학·학술신학 세 종류로 분류했다. 중국신학은 교회신학으로 신앙고백과 교회소속이 있다. 한어신학은 신앙고백은 있으나 교회소속은 없다. 학술신학은 신앙고백도 교회소속도 없

다. 이 세 신학은 각자의 집단과 목표를 갖고 있다.

왕소초 교수는 '공공신학과 한어신학의 관계가 중국학술계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한어신학은 1978년 사회개혁개방을 계기로 하여 공공신학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막스주의가 중국학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학술의 자유도 최소한에 머물러 있어 한어신학계의 어려움이 있다"고 토론했다. 왕 교수는 한어신학의 특징으로 비교회성(교파초월성), 인문성, 타문화성(대화성과 개방성), 중국대륙의 기독교학술연구 일치성을 제시하고 한어신학이 지향해야 할 공공신학의 규범적 특징을 전한 후 "중국국정의 특성상 신학원과 신학과 개설이 불가능하다. 중국현실에서 신학자는 종교·정치·학술·경제가 지닌 공적 의식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공공영역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경로 교수는 "한국 근현대사에 민족사적 과제였던 개화운동, 독립운동, 해방투쟁운동, 인권운동의 단초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담당하였듯 민족통일운동에도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신태진 기자

## 한기총, 총회서 정관 개정 · 한교연 가담자 제명

홍재철 대표회장, 6·25국민대회 참여 적극 당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제23-1차 임시총회가 18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정관개정안, 대한민국지킴이 6·25국민대회, 질서확립대책위원회의 건 등이 논의됐다. 1부 예배는 엄정목 공동회장 사회로 이만신 목사가 '열한시에 온 사람(마 20:1-16)'을 설교했으며, 황덕광 공동회장이 기도, 임종수 총무협의회장이 성경봉독을 각각 맡아 진행했다.

정관개정안의 경우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총대들은 제15조 실행위원회 직무에 대해, 3항 기존 '회원 교단과 단체의 가입 및 탈퇴와 제명 심의'를 '회원 교단과 단체의 가입 및 탈퇴와 제명 승인'으로 개정하는 안에 전원 찬성했다. 운영세칙에 대해서도 '회원권 상실 및 제명은 임원회의 결의와 실행위원회 승인을 거쳐 시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는 제1장 3조 5항 수정안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연합(한교연) 가담 교단 및 개인에 대한 제명안도 보고됐다. 제명 교단은 한영·개혁선교이며, 개인의 경우 김요섭(예장 대신)·조성기(통합)·유중현(백석) 목사 등 9명이다.

이와 함께 행정부류 교단들에 대해 총대들은 제명 의견을 밝혔으나 홍재철 대표회장이 "돌아올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보

자"고 해 보류했으며, 개혁총연과 한교연 관련 불법행위는 질서확립대책위원회에서 고발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또 한국인터넷선교회, 예장 예음, 예장 합동개혁 등 3개 교단 및 단체에 대해서는 실사 결과 승인하기로 했다.

홍재철 대표회장은 앞서 오는 6월 24일 오후 4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기로 한 '대한민국지킴이 6·25 국민대회'에 큰 의욕을 보였다. 홍 대표회장은 지난 보수 시민단체 대표들과 가진 세 차례 예비 모임에 대한 경과를 설명하고, 각 교단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기존 대형교회 1-2곳에서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대회를 열고자 한다"며 "나라가 위기에 있는데 이때 3만여명이 참석할 국민대회에 모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를 위해 각 교회 여성교회(여전도회) 회장 및 임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24일 오후 3시 한국기독교 여성지도자 대회를 개최하고, 6월 9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 청년지도자 대회, 오후 3시 한국기독교 남성지도자 대회를 각각 진행한다. 3개 대회 모두 서울 인사동 승동교회에서 열린다.

임시총회에서는 전날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실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홍재철 대표회장을 비롯한 총회장들에게

'생명존중 홍보대사' 위촉장을, 이의 참석자들에게는 '심폐소생 능력이수 자격증'을 각각 수여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소방방재청 문성중 구조구급과장은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명과 여러 목회자들의 사명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양 기관이 협약을 체결한 만큼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공동 사업도 적극 펼쳐가겠다"고 인사했다.

이외에 자살방지재단 협의회 조직의 건, 한기총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의 건, 이승만기념관 건립의 건, 학원폭력 근절대책위원회의 건, 탈북자복송반대집회의 건 등을 논의했다.

총회 도중에는 조갑제 대표(조갑제닷컴)의 시국강연이 열리기도 했다. 조 대표는 "이번 4·11 총선은 총북좌파와 친북세력의 나라 지배를 막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며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총북세력의 실태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 추종하고 굴종하는 세력이 바로 지금 통진당 사태에 나오는 총북세력이고, 이들은 소위 '내재적 접근법'을 사용하면서 북한 지도자를 비판하거나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지 않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연방제통일만을 부르짖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용 기자

## 주요 교단 관계자들, 별도 찬송가 발행 가능성 시사

경우에 따라 별도의 한국교회 찬송가가 새로 발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장 통합과 합동 등 주요 교단 관계자들은 21일 아침 서울 정동 모 한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

이날 모임은 최근 총남도청이 한국찬송가공회(이하 공회)의 재단법인 설립 인가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지금까지 공회 법인 추진의 부당성을 제기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향후 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현재 법인이족이 제출한 '법인 허가취소 집행 정치 가치'가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대정부법원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면서, 공회는 아직 법인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법정 공방이 길어질 경우 한국교회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새 찬송가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이후 본안소송이 본격 시작되면 상황에 따라 현재 발행 중인 찬송가(21세기 찬송가)의 출판이 더 이상 어려워져, 새로 찬송가를 편찬하는 것이 그나마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여기에 국내외 작곡가들에게 지불하는 수익원대의 저작권료도 새 찬송가 발행의 배경으로 꼽혔다고 밝혔다.

그러나 만약 새로 찬송가가 발행되면



한국찬송가공회의 법인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교단장 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교인들이 또 찬송가를 구입해야 하는 등 부담이 가중돼, 이들은 가능하면 이런 상황을 피하는 선에서 향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그럼에도 새 찬송가의 발행이 불가피해질 경우를 대비해 지금부터 공회 비법인족으로 하여금 새 찬송가 편찬을 준비토록 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공회 비법인족은 새 찬송가의 청사진을 그려 조만간 각 교단장들에게 이를 보고할 방침이다. 더불어 이들은 다시는 공회의 법인과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고, 공회에 이사를 파송한 교단이 해당 이사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임이나 소환 등의 조치를 가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키로

했다. 현재는 이것이 불가능한 상태다.

모임에는 김중훈 감독(기감, NCKK 회장), 김영주 NCKK 총무를 비롯해 김원철 총회장(복음교회), 박현모 부총회장(기성), 박성배 총회장(기하성 서대문), 최길복 총무(기하성 여의도), 김근삼 주교(대한성공회), 강경원 총회장(예장 대신), 박위근 총회장(예장 통합), 박만희 사령관(구세군), 유정성 총회장(기장) 등이 참석했고 공회 비법인족인 김용도 목사(공회 공동대표), 이치우 목사(공회 공동총무), 강승진 목사(공회 공동총무), 윤두태 목사(공회 공동서기)가 함께 자리했다. 예장 합동 이기창 총회장은 해외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다. 이대용 기자

# 자 동 차! 토네이션

남가주 지역 목회자, 선교사, 신학생을 위한 차량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어려운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한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일 것입니다.

주관 : 기독교일보    후원 : NARA AUTO 바디, LA 정비    연락처 : 기독교일보 213-739-0403



Dealer No. 62655



중고차 황제  
**김기형**  
 213-453-5900  
 714-743-1000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막 9 장 23 절

**\$중고차 고가매입\$**

“기본 **\$700 더** 드리는 헤밀리자동차”

**새차 리스, 중고차 매매**

전차종 All Makes & Models  
**HONDA, TOYOTA, LEXUS, BMW, MBZ**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경매장 안내해 드림



[www.familyauto.us](http://www.familyauto.us)

중고차를 판매하시면 새차는 원가에 뽑아드립니다.



**213-747-5900**  
**714-743-1000**

1230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당뇨에는 동의 당뇨환**

동의 당뇨환을 복용하는 순간부터 그 효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징**

1. 100% 순수 한약재로 되었음
2. 식사가 어느정도 완화됩니다.
3. 피가 청결해져서 최대한의 합병이 억제됨
4. 식후에 갈 심해 복통합니다.
5. 당 수치가 조절됨에 따라 동의당뇨환의 복용량을 줄여가다가 끊을 수 있습니다.

실로암 한의원 2621 W. Olympic Bl #202 LA CA 90006 213-427-0036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inex AUTO COLLISION CENTER**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사과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금 매입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마켓용 Gondolas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라짐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가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liff Ave. Lancaster, CA 93535

**빠른 효과 치료 베니스 한의원**

특별진료과목 [감기/비염/위장병] 예방 및 근본치료 원칙

- 각종 위장병, 만성변비, 방광염, 잦은소변
- 중풍, 반신마비, 대상포진, 안면마비, 오십견
- 신장결석, 담결석 (전통비방특수한약)

침/전침/화침/블부왕/고약/보약/공진단/소화환

유학생 여행차 교통사고 건강보험상당 2270 W. Venice Blvd L.A. CA, 90006  
213.271.7002 웨스턴파 베니스 사거리 테크노 링크 주차장 WWW.LAHERB.COM

**황씨 냉동. 에어컨. 히팅**

신속, 정확, 저렴 전지역 가능, 24시간 대기

상업용: 마켓 식당 리커, 냉동냉장, 웨어하우스 교회 센츨럴 A/C, Walk-in 냉장, 냉동설치 및 수리, Ice Cream 머신수리  
가정용: LG벽걸이 A/C설치 수리, 하우스 아파트 센츨럴 A/C 냉장고, 설치 및 수리

**(213)220-7131 (626)807-8799**

**Kate Cho** 헤어디자이너 케이트 조

Man's cut \$10.00 Women's cut \$20.00

영양염, 윌빙염, 아재염 \$50.00 하이아이트, 코팅, 염색 \$50.00

매직 스트레이트 펠 \$80.00

반드시 꼭 예약 필수!! 213.505.5756  
450 S. Western #101, Los Angeles, CA 90004

**골드핑거 직접재단 직접재봉**

양복점

삼성이 만든 명품 양복지 골드텍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양복점 에서 수제양복을 입어보세요. 귀하의 품위가 나타납니다.

**(213)386-5858**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동산한의원 30주년**

50년 경험방으로 특수치료 50% 할인가격으로 드립니다.

**213-382-0067** 2621 W. Olympic Blvd #20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금 삽니다** 최고가 현금매입

10K, 14K, 18K, 금, 은수저 등 (무료출장매입)

**LA: 213-407-8759 / Other: 714-293-9701**

**비영리단체 설립 및 면세허가** (교회, 선교단체 등)

- 처리경험 풍부 www.UsCpaLegal.com
- 비영리단체 세무상담, 장부정리(Quick Book), Tax 보고
- 일반 영리 사업체 설립 및 각종 세무보고
- IRS, EDD, FTB 등 세무감사 수감

**Kim & Accountancy Tel, 714-226-0900**

sasafterschool.blogspot.com

민고 맡기세요. 아이들의 성적이 달라집니다 K~6

Math English ESL Writing Bookclub

**APPLE TREE ACADEMY**

Pick up, 전담한 선생과 함께 학교공부 준비를 100% 도와 드립니다.

**213.507.5045**

**가디언 컴퓨터 수리**

**213-663-8007**  
**213-536-4696**

317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밑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이중창문교체전문**

Value Windows & Doors

햇빛차단 Low-E3

→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그레이스 최** 최추신경 한방병원

www.herbsabu.com

금연클리닉 스페셜 \$200 (당문 때까지 치료)

726 S. Wilton Pl. #2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1-8228

귀국 자동차운송 **업계최저 \$950**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통 모터 시스템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홈 페이지 제작**

제작비용 걱정, 이제 그만! \$499

저렴하고 빠르게 제작

풍부한 제작경험을 토대로 정성껏 제작해드립니다.

**제작문의 213.587.3498**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 외안,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세상 속의 소금과 빛, 우리는 크리스천〉

# “섬김을 통해 힘과 열정 얻어요”

[인터뷰] 은혜한인교회 강석구 집사



강석구 집사

바야흐로 평신도 시대다. 복음전파의 사명을 가진 평신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 초기 선교 시대에 안디옥교회는 이름 모를 크리스천에 의해 세워져 세계 선교의 교두보가 됐을 만큼 평신도들의 영향력은 엄청났다. 현재 세계 선교에도 전문직을 갖고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평신도들이 많다. 은혜한인교회 강석구 집사는 30년 전에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2007년 넘는 구역의 리더를 맡아 섬기고 있다. 또한 앞으로 선교지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리라는 작은 소망을 갖고 있다. 20여년 동안 프레스디아스에서 섬기며 신앙이 어려울 때마다 회복의 체험을 했다는 그는 주저없이 쉬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는 말한다. “자전거를 탈 때 쉬면 안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선교 열정이 뜨겁다. 예전에 모스크바 미션 페스티벌에 참여하면서 선교의 안목이 잡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지 않았나 싶다. 그 당시 신앙생활이 우선이었고 직장은 그 다음이었다.

지금은 200명 이상이 모이는 구역장을 담당하고 있는데 목회자의 심정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이는 하나의 작은 교회로 볼 수 있다. 구 성원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주고 담당 목회자와 심방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목회자의 심정이 아니고서는 사역을 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성도와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힘과 위로를 주고 받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씩 교회에 나가기도 할 정도로 구역을 섬기는 일이 재밌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교회 자랑을 해 달라.

자랑을 한다면 선교라 할 수 있다. 김광신 목사님이 교회 개척 당시 예산 절반을 선교에 지원했다.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교회 개척 후 처음 20년 동안은 교회 건물이 없었다. 현재는 이민 한인교회 중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됐을 정도로 자랑스럽다. 교회를 보면 셋방살이를 하면서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주님만 쫓는 길을 온 것 같다. 우리 교회 평신도들은 은혜를 받아 교단 신학교에서 공부해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남가주 각 지역에 개척하는 목회자들이 많고 실제 교회도 많이 성장했다. 교회 개척을 나가면 처음 2년 동안 지원해 준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는.

교회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집회에서 풀링하는 시간에 나도 모르게 일어났다. 그날따라 그 메시지가 마음에 다가왔다. 전도폭발 집회였는데 구원의 기본적인 교리

에 나 자신이 겪은 것이다. 당시 갑자기 일어나자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고 가슴이 뚫리는 듯한 감각이 일었던 기억이 있다. 그때부터 구원의 확신이 생겨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또 20년 동안 레이즈 프레스디아스에서 섬겼다. 1년에 6번 빅베어 마운틴에서 수련회를 갖는데, 그동안 팀 멤버로 섬기면서 어려울 때마다 계속 회복되었고 힘들어 하며 주저앉았던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스텝으로는 15년 동안 섬겼다.

-사업체 소개를 한다면.

종합광고 회사(ProLogo, 가든그로브 소재, 714-636-3070)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쇄물, 트로피, 티셔츠, 달력 등 판촉물을 판매하고 있다. 교회 장립 및 임직예배에 쓰이는 기념품도 만든다. 교회 고객에게는 은혜를 받아 교단 신학교를 제공하며 개척교회를 돕는다. 처음에는 유니폼 비즈니스를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필요한 것을 보게 됐고,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됐다.

-계획과 비전은.

나이가 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교지를 방문하고 싶다. 교회 일을 많이 하려고 한다. 앞으로 15년을 더 일하며 1년에 한번 정도 교회에서 지정한 선교지역을 방문하려고 한다.

토마스 맹 기자

# 부모님 기도와 주일성수 내 생명 구해

[간증] 미주평안교회 김병호 집사

한국에서 대형 맞춤형복점을 운영하며, 한국아트패션 회장직을 맡고, 94년·95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을 받았던 김병호 집사는 IMF 사태로 회사를 잃었다. 실의에 잠긴 그에게 그의 어머니는 미국행을 권유했다. 미국에 온지 1달 반 만에 신분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직장으로 옮겨 마음을 한 시름 놓았지만 몸에 이상이 찾아왔다. 떨어지는 듯한 신장의 통증과 왼쪽팔 전체의 마비증세가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그는 지쳐갔다.



김병호 집사

건강검진 겸 관광을 위해 모국을 방문한 그는 건강검진과 관광으로 일정이 빠듯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성수를 위해 강남중앙침례교회를 찾았다. 그곳에서 우연히 의료선교회 집회를 참석하여 병명을 알게 되고 수술을 통해 생명을 건졌다. 자신이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주일성수와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김 집사는 만나는 이들에게 그 둘의 중요성을 간증한다.

-부모님들로 인해 신앙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 기억 속 아버지는 여름성경학교나 겨울성경학교에 가면 성경책을 다 빼앗아 불태울 정도로 심하게 핍박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한 겨울날 새벽기도를 가시던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술에 만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집에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날 잠이 깬 후 자초지종을 들은 아버지는 할머니와 어머니께 “그동안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리시고, 제게는 “아버지 노릇도 못하고 죽을 뻔했다”며 회개하며 우셨습니다. 그 일 이후 아버지는 신일교회라는 곳을 스스로 찾아가 다니셨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해서 포천에 기도원을 세울 때는 수중에 돈이 없으니 대신 몇 달 동안 공사를 하는 곳에 가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새벽기도를 빠짐없이 나가고, 어디에 있든지 주일예배를 꼭 드리며 저에게 삶으로 신앙을 보여 주셨습니다.

저는 79년에 양복점을 시작하면서 신앙을 잃었지만 결국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를 가게 된 건 부모님들의 기도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또 어머니는 저희 가족을 미국에 보내기 위해서 어떤 분께 계약서도 없이 돈을 빌렸는데 그 분이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에게

돈을 빌렸던 다른 분들은 그분의 유족들에게 값을 돈을 다 갚았다고 돌려받지만 어머니는 1년 뒤에 돈을 갚으러 찾아가셨고, 유족들이 감동하며 감사해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정직하고 신앙적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고 미국에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79년도부터 2000년까지 ‘대림리사’라는 맞춤형복점을 운영하며 한국아트패션 회장직을 맡기도 했고, 94년, 95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직업훈련원 감독위원, 한국복장기술경영협회 상임이사로도 맡았으며, 전 맞춤형복협회 패션담당 이사직을 맡았던 96년, 97년, 98년에는 한국맞춤복패션쇼를 개최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베스트 드레서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IMF를 맞으며 회사를 잃고 실의에 빠져있는 저를 보다 못한 어머니께서 “너 정도 실력이면 미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니 미국에 가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수 1,000만원을 마련해 우리 가족을 미국에 보내셨습니다.

-교회에서 죽다가 살아났다는 간증을 하셨는데.

미국에 온지 1달 반이 지난 후에 한 양복점에서 일하며 신분문제를 해결했고, 7년 정도 일하다 회사에 주문이 많지 않아 다른 곳으로 옮겨 가게 됐습니다. 그 후 시간당 30불을 받으며 운전선수들이 양복을 맞추는 큰 회사에서 일하던 중 2010년에 건강했던 몸에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심장이 쥐어

짜고 후벼 파는 것 같이 아프고, 왼쪽팔 전체에 마비증세가 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해도 아무 이상 없다는 결과가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갑자기 죽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해 10월 28일 사표를 내고 잠시 쉬러 예약해 놓은 건강검진(대장, 위장, 상복부, 전립선)과 관광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모든 불일이 끝나고 둘째 딸 집에 머물던 중 주일을 맞아 ‘주일에 배는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강남중앙침례교회를 찾아 갔습니다. 그곳에서 있는 의료선교위원회 통해 건국대학병원 심장중추외과 신세균 박사님을 만났고, 3일후에 병원으로 찾아가 CT 촬영을 한 결과 심장의 혈관이 75%가 막혀 있는 ‘심근경색(협심증)’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지 주일성수를 한 것뿐인데, 이를 통해 주님의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요?

2010년 회사를 그만두고 1년간 정부보조를 받고 간신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맞춤 양복 전문점인 ‘골드핑거’라는 가게를 작년에 오픈했습니다. 이 사업체를 오픈할 때도 하나님께서 도와 주셨습니다. ‘불행이 고가 상품이 나가겠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부인 꿈 속에서 이 가게도 보여주셨고, 소수지만 의식주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틈새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삼삼이 만든 양복적인 골든텍스를 사용해 직접재단, 재봉해 맞춤형복을 거품을 뺀 가격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에 맞춰서 제작해 드리며 수선도 해드립니다. 문의)213-386-5858

빅터 박 기자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 무제한

**우리 가족은 아이토크비비로 통한다!**

로컬, 장거리, 한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30%** 환율 보장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아이토크비비** **1.800.872.2902**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글로벌 플랜 ~~\$24.99~~

**\$9.99** /월

첫 3개월간, 이후 \$24.99/월

**행사기간 2012년 5월 31일 까지**

**무료 부가서비스** 070 마이코리아번호\*\* 한국 070전화 필요없다! 한국 전화번호 제공

**아이토크글로벌** 매월 500분 전화 카드가 필요없다! 내 휴대전화로 국제 전화를

**1.800.875.8318**

고객상담시간 : 365 일 오전 6시 ~ 저녁 10시 30분 (PST)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해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받으세요.

**아이토크비비** **1.800.875.8318**

아이토크비비 공식 가입센터 모집

한인마트내 매장을 보유하고 계신분 또는 전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가입센터 상담전화: **703.348.7544**

(통화시간 월~금 오전 10시 ~ 오후 8시)

\* 1인 이벤트 - 프로모션 기간 3개월을 포함해 총 15개월의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은 행사기간 내 글로벌플랜 또는 글로벌 플랜에 가입한 신규 고객에 한합니다. 계약기간 내 서비스를 약정하는 경우, \$69.99의 약금 및 프로모션 기간 동안 동안 발신 중 금액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예식은 iTalk Global Communications, Inc. 에 있습니다. \*\* 무료 부가서비스 마이코리아번호를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청구되거나 취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 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0일 환불 보장 기간 이후 서비스 약정시 이미 납부한 월 이용료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무제한 플랜 가입자에게는 개별비 (329.99)가 부과됩니다. 무제한 플랜이 가능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외의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유선전화는 포함되지 않으며, Puerto Rico, Guam, US Virgin Islands 등 미국 해외 영토의 통화는 무제한 통화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격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http://www.Korea.iTalkBB.com) 을 참조하거나 고객 상담센터 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환율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iTalkBB)는 환율변동에 의해 생기는 부가적인 리스크를 전액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고, 환율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2012 최신행 EQUUS

8 스피드의 넘치는 힘과  
력서리한 중후함을 느껴보세요

**599+TAX** (STK:052436)

Closed and lease 48 month plus tax  
MSRP: \$59,650 Residual : \$29,228.5  
T.D.O: \$4,995 No Security Deposit  
For 12k Per Year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Comp. Coupon  
(O.A.C)



800대를 수용하는 에쿠스를 가장 많이 보유한 북미 NO.1 현대딜러



## 2012 Sonata GLS

EPA 기준 대형차급 실내공간  
2011년 정부 안전기준 별 5개를 획득한 최초의 중형세단

**165+TAX** (STK:503039)

Closed and lease 48 month plus tax  
MSRP : \$22,065 Residual : \$11,033  
T.D.O : \$2,299 No Security Deposit  
For 12k Per Year  
Plus College Rebate , Military Rebate, Valued owner Rebate  
(O,A,C)



**5월 한달간 무이자(0%)에 \$500을 더 드립니다.**

## 5월 한달 푸엔테힐스 현대가 드리는 혜택

(행사기간 2012년 5월1일~31일)

1. 구입하는 모든분들께 유명 골프장에서 4분이 무료 라운딩 할 수 있는 티켓을 드립니다. 
2. 평생 카워시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Fleet Manager  
찰리 정  
213.276.8959



Sales  
스티브 장  
213.235.6825



Customer Care  
제니 김  
310.749.7599



Sales  
매튜 정  
714.797.3571



WWW.PHHYUNDAI.COM  
1-888-212-6431

LA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s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